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1 8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53—854 1982년 6월 18일(금) & 1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June 18 & 19, 1982

전두환 대통령

캐나다방문

8월28일~31일

아프리카 4국 순방

한국원수로는 처음, 북한과 수교국들

(서울17일=연합)전두환 대통령부처는 캐나다 방문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케냐, 나이제리아, 가봉, 세네갈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한다고 황선필청와대대변인이 17일 발표했다.

황대변인에 의하면 한국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캐나다와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기간은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이다.

본보 17일자는 캐나다방문일정을「18일부터 3일간」이라고 보도했었다.

전대통령은 17일부터 19일까지 케냐, 19일부터 22일까지 나이제리아, 22일부터 24일까지 가봉, 24일부터 26일까지 세네갈을 순방한 뒤 스페인령 동카나리아군도 라스·플라마스에 이틀간 기착, 원양어선 선원들을 위로한 후 28일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다.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은 작년 9월 있은 트루도 캐나다수상의 한국방문에 대한 답례로 에드워드 'R·슈라이어 캐나다총독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케냐의 모아대통령, 나이제리아의 샤가리대통령, 가봉의 봉고 대통령및 세네갈의 디오욥대통령등은 모두 전대통령을 초청했었다.

가봉과 세네갈 대통령은 75년과 79년 각각 한국을 방문했다.

전대통령은 이들 방문국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한국상품, 용역, 기술지도등 [illegible]과 문화교류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대통령의 외유는 작년 연초에 레이건미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미국 방문, 작년 6월과 7월의 동남아순방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대통령이 순방할 아프리카 4개국은 현재 남·북한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특히 중요시된다.

토론토 방문여부 불명
체류일정 발표안돼

(오타와=이태은지국장)8월28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를 방문, 트루도 캐나다 수상과 일련의 정상회담을 가질 전두환대통령은 태평양연안국정상회담에 관해 트루도수상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정상회담은 지난 5월 호주의 맬콤·프레이저 수상 방한때 전대통령이 제의한 것으로 캐나다를 비롯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과 아세안 5개국및 한국등 11개국이 매년 정상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캐나다방문 스케쥴과 대다수의 교민이 살고 있는 토론토 방문여부는 17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캔두 원자로 1기를 한국에 판매한 캐나다는 전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캔두판매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루도수상 환영 표명
이규현대사·이총영사

(오타와=이태은지국장) 피에르·트루도 캐나다수상은 17일 "전대통령이 우리의 공식초청을 수락해 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더욱 친밀한 유대를 갖게 되길 바란다" 고 수상실 대변인을 통해 말했다.

이규현 오타와주재 한국대사는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본인의 재임중 이루어진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가 양국관계는 캐나다의 6.25참전, 많은 민간교류도 강화돼 왔으며 작년 9월 트루도 수상의 방한과 이번 전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으로 정치·경제적으로도 보다 돈독해 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는 "재임중 본국의 대통령을 모시게 된것은 영광이고 기쁘다. 오타와주재 이규현 대사로부터 전대통령 방한을 통고받은 것은 수일전이었으나 1급비밀로서 일체 발설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 체제일정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총영사는 전대통령의 토론토방문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 아는 바는 없지만 3박4일의 방문기간동안 오타와에만 머물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오타와에서 에드워드·슈라이어총독 관저인 리도·홀(Rideau Hall)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세습 난망

(서울16일=연합)북한의 권력이 가까운 시일내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게로 이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의 로버트·스칼라피노교수가 15일 말했다.

세계적인 북한문제 전문가 스칼리피노교수는 또 40대의 김정일이 정권을 계승하더라도 50대, 60대인 강력한 보좌관들과의 세대차 때문에 오래동안 권좌에 머물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스칼라피노교수의 발언은 미국의 허드슨연구소와 한국의 국가통일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의 전망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구독은
533 236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속 광 호

워딩톤, 토론토·선 하직
보수당으로 정계 투신

"성장하는 작은 신문(The Little Paper that grew.)"이란 캐취·프레이즈를 걸고 급격히 커온 토론토·선지의 편집인 피터·워딩턴(55)씨가 토론토의 브로드비유·그린우드 지역 연방의원보궐선거에 보수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평소 조·클락 보수당당수의 사임을 요구해온 워딩턴씨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내가 비록 그(클락)를 비난하긴하더라도 현재의 수상(트루도)보다는 한 차원이 높다"고 말했다.

워딩턴씨는 트루도와 가장 강경하게 맞서온 언론인중의 하나이며 날카로운 필봉으로 많은 언론부문상을 받았으며 한국전에도 참전했던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다. 토론토·선지가 기반을 굳힌 것은 그의 독특한 신문편집 덕택으로 평가된다.

지난 2월 토론토·선지의 경영권이 맥클린·헌터지로 넘어간 이후 「선」지 편집인자리를 물러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었다.

워딩턴씨는 선거일이 확정되면 편집장직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신민당이 차지해 온 브로드뷰·그린우드 지역은 밥·뢰의원이 온타리오주 신민당당수로 선출된 후 공석이었다.

캐나다를 재건하기 위해 연방의석을 원한다는 워딩턴씨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펼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유산: 이는 임신한 여성과 남편, 그리고 의사간의 문제이다.

●동성연애자들: 일반인과 똑같은 권리를 지닌다. 섹스의 기호는 사적인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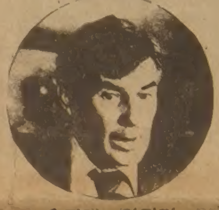
●이자율: 나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영·불어 공용문제: 이상은 좋으나 캐나다는 역시 영어권 대륙임에 변함이 없다.

●물가고: 이 문제는 오타와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그 대책도 거기서 나온다.

●언론: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등 미디아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같다.

●정치적 영웅들: 마가렛·대처는 근사하다. 살해된 이집트의 사다트대통령도 용기와 양식을 가진 정치가였다.


◆피터·워딩턴

34만달러 불법반출 사건
위조여권·암달러상 끼어

(서울17일=연합)한국검찰은 최근 서울의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화 $34만를 불법 반출하려던 사건과 관련 2명의 달러브로커와 불법이민브로커 3명을 수배중이다.

2개의 여행가방에 가득든 이 돈은 지난 6월10일 김포공항세관에서 X-레이탐사기에 의해 적발됐으나 돈의 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미스터·리라고만 알려진 이민업무대행업자가 2명의 달러브로커중 한사람인 김봉섭(31)씨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었다고 자백한 후 지명수배를 시작했다.

김과 이영진(33)은 작년 서울 시중은행에서 총 357만2천달러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김은 3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

정순철에 10년 구형
미문화원 방화사건, 공범 4년

(서울16일·연합)한국검찰은 15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열린 광주 미국문화원사건 공판에서 주형의자 정순철(27)씨에게 10년 징역을 구형했다.

캐톨릭 운동가인 정씨는 현재는 철폐된 계엄령위반및 80년 12월9일, 4명의 공범과 함께 광주 미문화원 방화후 불법해외도피를 기도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또 계엄령위반및 불법해외도피기도로 기소된 전 고려대학교 학생 박계동(30)씨에게도 4년 징역을 구형했다.

박은 80년 5월 반정부학생데모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의 피고인은 82년 1월 일본으로 도주하려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판은 오는 7월5일에 열린다.

월드컵축구 TV중계표

(CBC—TV)

◆1차 예선전
●18일(금)= 이탈리아대 페루(정오), 아르헨티나대 항가리, 브라질대 스코틀랜드(19일정오 방영)
●19일(토)= 폴란드대 카메룬(정오), 엘살바도르대 벨기에, 소련대 뉴질랜드
●20일(일)= 서독:칠레(21일정오 방영), 영국:체코슬로바키아(정오), 스페인:유고슬라비아(11 p.m)
●21일(월)= 알제리아:오스트리아(11 p.m.), 프랑스:쿠웨이트, 온두라스:북아일랜드
●22일(화)= 페루:폴랜드(정오), 소련:스코틀랜드(11p.m.), 벨기에:항가리
●23일(수)= 이탈리아:카메룬(정오),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11p.m.), 브라질:뉴질랜드
●24일(목)= 알제리아:칠레,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정오), 온두라스:유고슬라비아
●25일(금)= 서독:오스트리아(정오), 스페인:북아일랜드, 영국:쿠웨이트
◆2차 예선전—6월28,29일 7월1,2,4,5일
◆준결승전—7월8일 정오, 3p.m.
◆패자결승전—7월10일 2p.m.
◆결승전—7월11일 2p.m.

CBC—TV 채널 3,5,12 또는 채널 25(불어방송)에서 중계함.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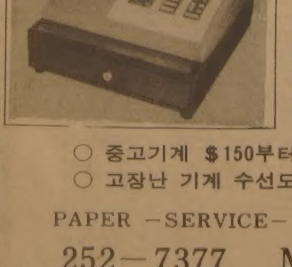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삼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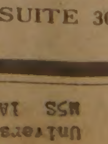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MR. 안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창현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44개 민속·문화 대제전
캐라반 18일 일제 개관
26일까지 9일간 토론토 일원서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토론토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캐라반행사에는 한민족의 「서울관」을 비롯, 토론토의 44개 민족그룹이 자기 고장을 상징하는 도시(주로 자기나라 수도)이름으로 전시관을 설치, 자기 나라의 문화및 풍속, 자랑거리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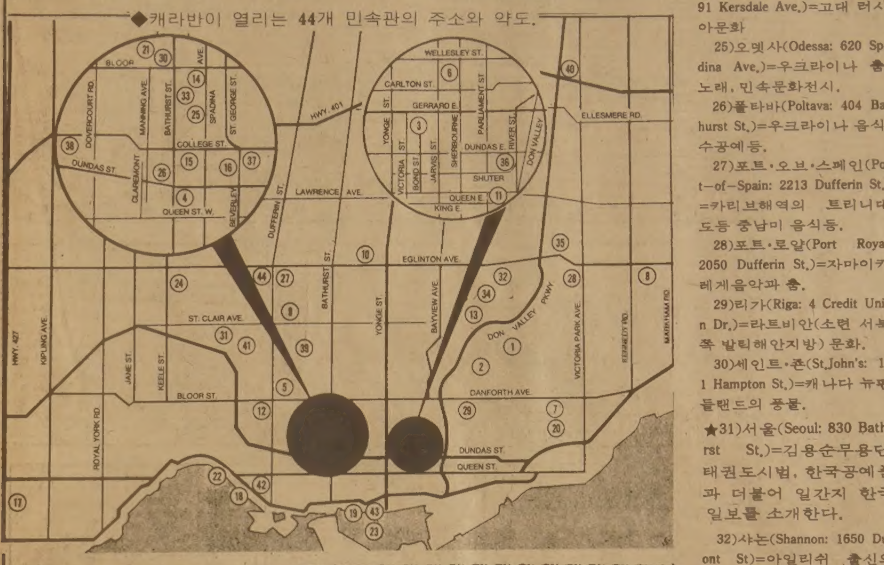
모든 전시관은 주중에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오 3시~11시(8시간) 문을 연다. 44개 전시관을 모두 돌아볼 수 있는 티켓은 $10, 1일간 통용되는 패스포트(입장권)는 $5이다. 어른을 따라오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이다.

교통편은 전시관 순회버스가 CN타워 앞에서 출발, 각 도시를 돌며 승차료도 1달러만 내면 추가지불없이 계속 갈아탈 수 있다.

서울관은 블루어 북쪽 베더스트 지하철역 앞에 있다. "서울관"을 비롯한 각국 민속관은 다음과 같다. (번호순 지도참조, 괄호안은 민속관 주소)

1)암만(Amman: 1081½ Pape Ave.)=중동의 요르단 민족의 풍속등 각종 아랍문화 소개.
2)앙카라(Ankara: 957 Broad)=터키문화 전시
3)아테네(Athene: 115 Bond St.)=그리스문화, 전통음식.
4)발벡(Baalbek: 707 Dundas St.W.)=레바논 민속쇼를 매일 볼 수 있다.
5)벨그레이드(Belgrade: 212 Delaware Ave.)=서비안(유고슬라비아)의 민속.
6)베르린(Berlin: 410 Sherbourne St.)=독일민속, 유명한 맥주를 잊지 말것.
7)블루·다뉴브(Blue Danube: 214 Main St.)=스와비안(남서부 독일지방) 민족의 제전, 각종 의상이 이채.
8)브루쎌(Brussels: 2467 Eglinton E.)=벨지움의 민속게임.
9)부다페스트(Budapest: 840 St.Clair W.)=헝가리의 음악춤등 소개.
10)카디프(Cardiff: 180 Eglinton W.)=영국 웨일즈를 대표.
11)도슨·시티(Dawson City: 83 Power St.)=캐나다 서북부 유콘지역을 소개, 1896년의 금광등.
12)더브로브닉(Dubrovnik: 5 Croatia St.)=그로치안(유고)의 문화.
13)헬싱키(Helsinki: 1100 Millwood Rd.)=밴드와 춤의 핀랜드 민속제전.
14)예루살렘(Jerusalem: 750 Spadina Ave.)=전쟁을 일으키는 공포의 유태인이 문화예술도 보여준다.
15)키에브(Kiev: 297 College St.)=우크라이나(소련 남부지방)의 미술등.
16)크라코우(Krakow: 206 Beverley St.)=폴랜드 음식등.
17)루비아나(Ljubljana: 739 Brown's Line)=스로비디안(이태리북서부, 유고서부지방)문화.
18)런던(London: 1225 Lakeshore Blvd.)=영국문화
19)로리즈날(L'Orignal: 435 Queen's Quay W.)=프랑스문화.
20)룩서(Luxor: 175 Main St.)=고대에집트 문화.
21)리브(Lviv: 83 Christie St.)=우크라이나 풍물
22)마닐라(Manila: 1473 Queen St.W.)=필리핀문화. 대나무춤이 유명하다.
23)뉴델리(New Delhi: 235 Queen's Quay W.)=인도문화.
24)노브고로드(Novgorod: 91 Kersdale Ave.)=고대 러시아문화
25)오뎃사(Odessa: 620 Spadina Ave.)=우크라이나 춤, 노래, 민속문화전시.
26)폴타바(Poltava: 404 Bathurst St.)=우크라이나 음식, 수공예등.
27)포트·오브·스페인(Port-of-Spain: 2213 Dufferin St.)=카리브해역의 트리니대도등 중남미 음식등.
28)포트·로얄(Port Royal: 2050 Dufferin St.)=자마이카레게음악과 춤.
29)리가(Riga: 4 Credit Union Dr.)=라트비안(소련 서북쪽 발틱해안지방) 문화.
30)세인트·존(St.John's: 171 Hampton St.)=캐나다 뉴펀들랜드의 풍물.
★31)서울(Seoul: 830 Bathurst St.)=김용순무용단, 태권도시범, 한국공예품과 더불어 일간지 한국일보를 소개한다.
32)샤논(Shannon: 1650 Dupont St)=아일리쉬 출신의 무용가 가수등이 동원된다.
33)스코피야(Skopje: 76 Overlea Blvd.)=남부 그리스인들의 문화.
34)시드니-어퓰랜드(Sydney: 292 Brunswick Ave.)=호주의 캥가루문화.
35)데살로니키(Thessalonik i: 30 Thorncliffe Park Dr.)=그리스의 댄서와 노래.
36)도꾜(Tokyo: 123 Wynford Dr.)=일본문화
37)바다(Vardar: 17 Regent St.)=불가리아 민속.
38)비엔나(Veinna: 207 Beverley St.)=음악의 오스트리아 소개.
39)빌니어스(Vilnius: 1011 College St.)=리투아니안(소련 볼틱연안거주민족) 음악과 춤.
40)볼가(Volga: 823 Manning Av.)=러시아정교의 종교행사들.
41)예라반(Yerevan: 45 Hall crowp Pl.)=알메니안(소련남부 흑해연안)문화.
42)자그레브(Zagreb: 1621 Dupont St.)=그로치안(유고)문화.
43)자코페인(Zakopane: 186 Cowan Av.)=폴랜드문화.
44)쥬리히(Zurich: 235 Queen's Quay W.)=스위스의 요들송등.

◆캐라반이 열리는 44개 민속관의 주소와 약도.



장로교개혁선풍
에트닉 교회 가입완화

기독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띄어온 장로교단에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6일부터 6일간 토론토시내에서 개최된 캐나다장로교 총회는

· 새총회장에 온타리오 캠브릿지에서 목회하는 스미스박사를 선출하고, 초강대국들이 핵무기사용금지촉구및 세계개발국(World Development Service)을 통해 제3세계(후진국)를 적극 후원하기로결의했다.

지금까지 캐나다장로교단은 에트닉교회에 대해 폐쇄적, 소극적태도를 보여왔으며, 교단가입 절차도 까다로왔으나, 크게완화, 많은 에트닉교회들의 캐나다장로교단 가입의 문을 개방했다.

총회는 작년부터 논란이 돼온 여자목사 안수문제에 대해, 여목사 안수에 반대하는 신학생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을것을 가결했다. 여목사 안수에 반대하는 목사에게는 노회에서 제게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총회에는 캐나다장로교 소속 한인장로교 대표로, 토론토한인장로교회의 박회민목사와, 서동준장로가 참석했다. 또, 한국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장 고현봉목사와, 총무 이의호목사가 초청되어, 총회벽두에 각각 인삿말을 했다.

캐나다장로교단은 산하에 1,100여 교회를 갖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신교 교단은 연합교회로 3,500여교회가 있다.

캐나다의 연합교단, 침례교단, 순복음교단은 이미 에트닉교회에 개방정책을 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캐나다장로교단 소속 한인교회들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담임목사.

한인장로교회 (박회민)
동부장로교회 (홍순관)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선 교교회 (강재천)
키치너장로교회(정동석)
런던장로교회 (신용규)
뱅쿠버한인장로교회 (이성재)
위니펙한인장로교회 (이영선)
몬트리얼한인장로교회 (목회자 공석중)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경제특집 시사 FORUM 5

소상인의 측면에서 본 경제불황

차선겸 (한인실협인협회장)

불경기엔 박리다매가 유리
"재벌은 불경기에 형성"

차선겸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인에게 "경기가 어떠냐"라고 물어서 얼른 "예"라는 대답을 듣기는 그리 쉽지 않다.

우리들은 언제부터인지 신문이나 T.V.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는 경제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 경제는 항상 순환하는 것이므로 경기순환(Business Cycles)과정상 호황기-침체기-불황기-회복기의 과정이 필연적이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진실로 신문등에서 떠드는 만큼의 심각한 불황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이에 대처한 나름대로의 대책과 각오가 절실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포사회의 비지네스는 그 절대다수가 소상인(Small Business)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중에서도 90%이상이 코너식품점에 종사하는 실정으로 과연 이와같은 경제불황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며(How to survive), 어떻게 재를 다스릴까(How to invest)?

지난주 경제전문지 Financial Post지의 통계를 보면 4월중의 소상인의 파산(Bankrupcy)이 3,528업소이며 그 증가율은 36%라는 공포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한인들은 억세게 재수가 없는 것같다. 대다수의 교포들이 떠나온 10여년전의 한국이 그러했고 세계에서 G.N.P. 1,2등을 다투던 이곳 캐나다의 경제가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성 보고에 의하면 4월중 캐나다 전업종 소매상의 절대매상 증가율이 3.5%에 불과, 년평균 12%이상의 물가 상승률에 비할때 소상인의 수난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기현상은 82년 중반기까지의 캐나다 식품업소 판매증가율은 13%를 상회하는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71년도 개인식품상(Independant Grocery Store)의 판매점유율은 전 식품판매량의 15.9%를 카버하였으나 81년말의 통계에 의하면 불과 9%로써 급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체인 수퍼마켓(Chain Supermarket)의 시장점유율은 64.4%에서 75.1%로 증가했다.

이는 각자의 경제적인 상태가 나날이 약화되고 있음을 인식한 소비자들이 식품비의 지출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실증으로서 교포 사업의 주류를 이루는 소매상인들에게는 다시한번 가게 경영의 재정비와 새로운 각오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대책(How to Survive)"

재론의 여지없이 원가절감에 의한 저렴한 판매가격의 유지, 대량판매(Volume Sales)에 의한 총수익(Total Gross Profit)의 증가, 대 손님관계(Customer relationship)의 꾸준한 노력이 소매경영학의 철칙이며 불황기일수록 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언어의 장애가 있다손 치더라도 밝은 미소와 배려깊은 봉사(Human relationship)의 개선은 성공의 비결이다.

불경기 시기의 가격이 비지네스에 미치는 영향의 그 좋은 예로써 작년 크리스마스 백화점 경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튼(Eaton)이나 심슨(Simpson)등의 고급백화점은 물건이 남아돌고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한데 반하여 저렴한 가격의 품목을 취급하는 울코(Woolco)나 젤러스(Zeller's)등의 하급 백화점은 판매증가를 보였다.

"How to Invest"-재산을 늘이는 방법에는 개인에 따라 천태만상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저 하는 것은 불과 10년 안팎의 이민자로서 신빙성있는 경제정보의 결핍, 경제지식의 결여, 선배이민자들의 성공적 사업전환 케이스의 부족, 언어의 장애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우리들이 최악의 경제 외적여건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의 증가를 위하여 유휴자본의 투자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것인지가 문제이다.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러갈래의 길이 있겠으나 근대경제학의 창시자 케인즈(Keynes, J.M.)의 유동성 선호설(liquidity preference theory)에 의하면 인간은 자산의 일부를 유동적 자산 즉 현금이나 요구불예금등의 형태로 보유하고져 하는 욕구및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이 급격한 화폐가치의 하락현상을 나타내는 경제여건속에서 현금이나 유동자산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우매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신흥재벌들이 불황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들어왔다.

이 시기에 과연 유휴자본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투자를 할것인지, 금이나 증권에 투자를 하여야 할것인지, 사업의 확장을 시도하여야 할것인지 교과서적인 고전 경제이론은 엄연히 존재하겠으나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자신있게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교포 상인들은 처해있는 각자의 재정적인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개인의 가장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의사결정만이 최선책이 아닌가 싶다.

수년전만 해도 푸대접받던 우리 코리안들이 근교의 골프크럽 어디를 가더라도 독실거리며 그들이 "Sir, Sir"하며 대접하는 것을 볼때,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Thanks God"-

북미인들, 점차 유럽인들 닮아
차덜 타고 사고도 감소

온타리오주 드라이버들은 차를 덜 타고 사고도 조금 내고 있음이 교통부에 의해 밝혀졌다.

금년 첫 3개월동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171명으로 80년 같은 기간보다 39.1%나 떨어졌으며 지난 51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이다. 31년전인 51년에는 현재 차량의 22%밖에 되지 않았다.

사고율 감소원인의 하나로 교통부는 온타리오 드라이버들이 작년도에 총 10억마일을 예년보다 적게 달린것을 지적했다. 올해 3개월동안 온타리오 차량들의 총주행거리는 440억6천만마일로 '80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개솔린판매량도 작년보다 9.6%나 감소했다.

이같은 주행거리단축은 온타리오주뿐만 아니라 북미전역에 걸쳐 퍼진 현상이라고 캐나다 자동차부속제조업자협회는 말했다.

동협회 대변인은 북미드라이버들은 점차 품질이 우수한 차를 구입하고, 차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동시에 될수 있는대로 운행을 적게하는 유럽드라이버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3대의 차를 보유한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에 차없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 차량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반면 드라이버와 자동차수는 계속 늘었다.

작년도 온타리오주 드라이버 수는 그 전년('80년)보다 22만3천명이 늘은 512만3천명이며 자동차는 29만2천대가 늘은 505만대였다.

교통부의 수석정보국장 프레드·씨더버은 자동차수와 드라이버가 늘었음에도 불구, 사고가 줄어든 원인으로써 주행거리 단축외에도 주민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증가와 정부의 강력한 안전벨트착용법 실시, 운전자교육강화및 취중운전자의 강력단속을 들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5년동안 하이웨이에서 일어나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위해 87천6백만을 지출한 것도 사고를 감소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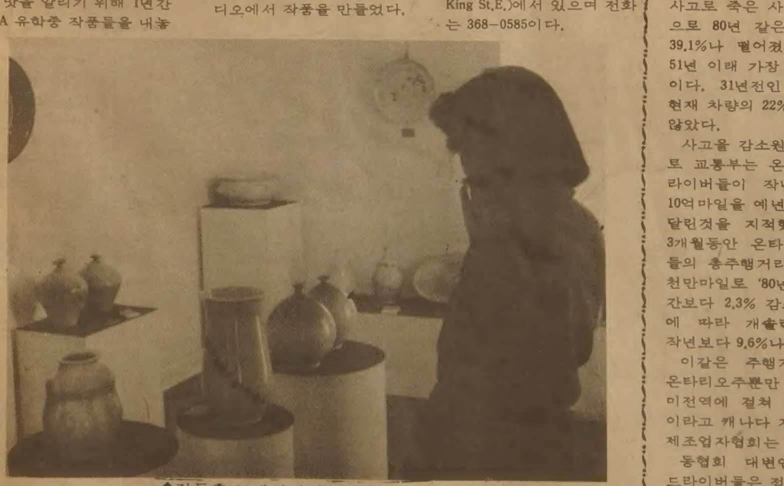
"가나다라를 담은 술병"
정동훈도예전 성황

지난 11일부터 세타멜화랑에서 도자기개인전을 열고 있는 정동훈씨는 17일 현재 출품된 작품 백여점중 반이상 팔리는 등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캐나다사회에 한국도예의 맛을 알리기 위해 1년간 OCA 유학중 작품들을 내놓았다는 정씨는 오는 27일부터 쉐·카푸신스화랑(2364 Yonge St.)에서도 친구인 조셉·파나치씨와 합동전시회를 갖게 됐다. 파나치씨는 캐나다의 일류급 도예가로 그동안 정씨는 그의 스튜디오에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번 개인전 출품작은 장식용 접시, 병, 대접, 찻주전자등으로 장식용 그림은 직접 그리거나 다른 작가들이 그린 것을 정씨가 구운것. 가격은 찻잔등 소품이 $2,30에서 $200~300까지. 특히 한글의 자모를 그린 작품들은 캐네디언들에게 한글의 모양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전시는 오는 26일(토)까지 매일 9시30분부터 하오 5시반까지 세타멜화랑(302 King St.E.)에서 있으며 전화는 368-0585이다.



◆정동훈 도예전에 출품된 작품들

한인Y합창단 공연
송경란·진경희 출연

토론토한인YMCA청소년합창단(지휘 안병원·반주 김진숙) 제1회 발표회가 오는 24일(하오8시)로 다가왔다.

이날 하오 8시 한인Y 2층 강당(931 College St. Tor.)에서 열리는 이 음악발표회는 합창·중창외에 아래 음악인들의 찬조출연이 있으며, 음악회가 끝난 뒤 다과회도 있다.

좌석 관계로 입장객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회원권은 5달러이다.

◆찬조출연
소프라노-송경란
첼 로-진경희
바이얼린-서 정
피 아 노-김진숙

◆지휘자 안병원씨.

한인교 A팀 역전승
런던배구, 천주교 눌러

(런던 강상권지국장)런던한인회(회장 배동범) 주최 제3회 기관대항 배구대회가 지난 12일 런던 기본스공원에서 5개팀 출전한 가운데 토너먼트로벌어졌다.

이날의 이변은 패자전에서 올라온 한인교회 A팀이 천주교회팀을 2:1로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다. 동팀은 작년에 이어 이 대회에서 2연패했다.

이 A팀은 첫게임서는 천주교회팀에 고전, 2:1로 패배했으나 패자전에서 올라와 역전,설욕했다.

이날 게임의 스코어는 아래와 같다.

우승: 한인교회 A팀
2 등: 런던청소년팀
3 등: 천주교팀
천주교 2:1 한인교회A
청소년 2:1 한인교회B
천주교 2:1 제일교회
청소년 2:1 천주교
한인교회A 2:1 제일장로
한인교회A 2:1 천주교
한인교회A 2:1 청소년

제10회
런던한인친선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금년에도 전 교민 친선골프대회를 개최코져 하오니 많은 골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7월 3일(토요일) 12시 정각
장 소 : Thames Valley Golf & Country Club
850 Sunninghill Ave, London ☎ : (519) 471-5750
참가비 : $30.00(Steak B.B.Q 디너 포함)
상 품 : GROSS 1, 2. 3등(Annual Trophy) • NET 1, 2, 3등
NEAREST HOLE(CASH $100.00) • LONGEST DRIVER
★트로피 외에도 많은 부상이 준비되어 있음.
연락처(☎) : 김택수 (519) 438-6644 신동삼 (519) 681-7149
서경승 (519) 686-9268 이석범 (519) 433-1631
김동수 (416) 270-5515 이창회 (416) 639-3139
이창복 (416) 624-0511 김현모 (416) 251-6578

주 최 : 런던 한인골프클럽

성전봉헌예배

할렐루야!
본교회에서는 새 성전을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봉헌예배를 드립니다.

* * *

일 시 : 1982년 6월20일(주일)
오후 7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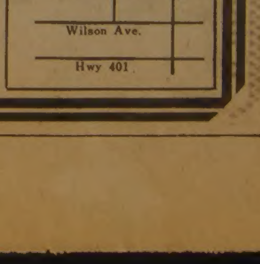
성전봉헌부흥성회

본교회에서는 성전봉헌과 아울러 믿음의 귀한 여종 안이숙 여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오셔서 함께 은혜나누시기 바랍니다.

* * *

일 시 : 1982년 6월24일(목)~27일
(주일) 매일 오후 7시30분

장 소 : 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당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전 화 : 636-1724, 755-1528



당회장 목사 김 용 출

〈여동원 수필선〉 ⑥

교회와 정장

여 동 원

◆여동원 씨

어떤 부인의 독백부터 한번 들어보자.

"이곳 이민생활중에서 주일날 교회에 가는 이 귀한 하루가 없다면 난 미칠거예요."

복합된 여러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장하고 나서는 그 산뜻함의 맛, 그 이유도 뺄 수가 없단다.

우리는 먼 명동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곳 여자옷 상점에 아내 따라 한번 껑청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여성들이 입고 다니는 옷 하나 하나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사서 허술하게 걸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군데의 상점에 들어가 보고, 적어도 10번은 갈아입어 보고, 옆의 남편과 아이들과 상점주인의 그럴듯한 상식과, 그리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복장과 TV나 영화에서 본 배우의 치장―이런 종합적 지식과 노력, 시간과 금전을 총동원한 작품이란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들여 산 옷이 단지 방안에서 맴돌기 위해서라면 너무도 맘이 허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인은 정장을 하고 교회에 한번 다녀오는 맛, 그것이 너무도 좋단다.

누구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도, 또 보아달라는 것도 물론 아닌 인간이면(여성이면) 멋을 내고 싶어하는 본성, 거기에 뽑내 나는 옷을 입은 산뜻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맘을 우리는 가벼이 허영이라 말할 수는 없다.

나의 어머님께서 옛날 정한수 떠놓고 손을 비빌때, 그리고 제삿날과 명절때 빼놓을 수 없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를 감고, 그중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으셨었다.

미신이라 비웃지 말라. 그분이 알고 계신 신은 그 토속적인 대상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우상이라 비웃을는지 모를 그 대상 앞에 서실 때마다 목욕재계, 정한수 떠놓고 새옷으로 단장하신 그 맘 바탕에서 한치의 가식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순수함과 진지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숭고하게까지 보인다.

청소와 목욕과 깨끗한 물과 새옷,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종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아닌가 싶다.

절대자를 향한 우리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되리라. 적어도 그렇게 되고자 생각한다면 일주일 동안 장농 속에 깊숙이 보관된 새 옷중의 새 옷, 좋은 것 중의 좋은 옷으로 정장하고 가는 것을 "교회가 횃숀쇼장이냐"고 감히 흉볼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인들은 외출복을 "손탁 안 주크"(일요복)라 부른다. 즉 교회 갈 때 입는 옷이란 뜻이다.

독일에서는, 적어도 내가 살았던 고장에서는 일요일만은 작업복 차림을 볼 수가 없었다.

교회에 잠바 나부랑이나 작업복 차림으로, 부엌에서 일할 때 입는 허드레옷 바람으로 예배를 감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나는 교회 나들이가 10년이 넘는다. 나들이라 표현될만큼 내 신앙심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묘한 것은 주일날 예배당을 찾아가는 버릇이 들어 버린 것이다.

주일날 아침, 이 날만은 깨끗해지고 싶은 맘을 가지고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정장하고 교회를 향하는 맘. 이 귀한 시간이 이유중의 하나는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된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9>

어떤 情事 ⑨

술잔을 든 文子의 눈은 벌써 풀리고…

「사귄지 오래 됐어요?」

「아뇨. 어제부터….」

「깊은 관계예요?」

「……」

「……」

「어쩌다 저런 여자하고…?」

「저 여자 안만나면 안돼요?」

그는 웃었다.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것도 같은 묘한 웃음이었다. 바짝 달아오른 문자는 어리광피우듯 그의 목에 매달려 가슴을 비벼댔다.

피서지에서의 광란의 밤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용해시킨다. 거기서 일상적인 관습과 도덕성을 찾으려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것들을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은 오직 육체적인 쾌탁만을 추구할 뿐이다.

그런점에서 박문자의 행위는 이해될만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자식이 있는 어엿한 유부녀였다.

「드디어 불이 붙었구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자리로 돌아온 문자를보고 명자가 하는 말이었다. 문자는 웃으며 백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것을 바라본는 명자의 눈에 불안한빛이 나타났다.

「얘, 너무 마시는것 같다.」

「흥, 너 왜 이러니? 왜 갑자기 얌전해졌지? 저 남자하고 한번 안출때?」

「싫어. 그만 마시라구.」

「난 아직 멀었어. 넌 부산살며니 촌년 다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풀려있었다.

「이제가자, 얘. 10시가넘었어.」

「무슨 소리야? 아, 넌 남편이기다리실테니까 가봐야지. 그래, 가봐. 내 걱정은 하지말고 가봐. 난 밤새 춤출테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집에 가자, 얘.」

명자가 문자의 팔을 붙잡았다. 문자는 그것을 가볍게 뿌리쳤다.

朴 男 그림

「너, 아주 웃기는구나. 호텔방까지 잡아놓고 집에 가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는게 좋겠어. 너 혼자 호텔에서 자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정말 너 웃긴다. 내가 어린앤줄 아니? 사고나면 또 어때. 내 걱정 하지말고 어서 가봐. 남편한테 쫓겨나기 전에….」

「늦게돌어간다고 이야기해줬어. 너 정말 안갈래?」

「밤새 춤춘다니까. 내 걱정 말고 너나 가봐.」

다시 음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문자는 플로어로 뛰어나갔다. 명자는 불안한 눈으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있었다.

선글라스와 문자는 쉬지않고 돌아갔다. 이제 누가 보기에도 그들은 애욕에 주린 한쌍의 연인들같았다.

문자가 선글라스를 메리고 자기자리로 돌아왔을때 명자는 이미자리를 뜨고없었다. 탁자위에는 메모가 하나 놓여있었다.

「문자야, 먼저 간다. 재미 많이 봐라. 하지만 현명한 너니까 잘 처신하리라고 믿는다. 집에 가서 전화할께. 너를 아끼는 명자가.」

문자는 픽하고 웃으면서 메모지를 구겨던졌다. 그리고 선글라스가 따라주는 술을 쭉 들이켰다.

〈독자의 광장〉

6월이 부르는 소리

장 정 숙(스카보로)

나로서는 참으로 드물게, 교회에 너무나 일찍 도착하게 되었다. 예배시간까지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 별로 신앙심이 두텁지 못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기다릴 인내심이란 도저히 없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묵도를 하고 난 나는 녹음에 빨려들 듯이 선뜻 일어서서 교회밖으로 나갔다.

6월인데 날씨가 꽤 쌀쌀하였다. 즐비하게 서있는 차들을 지나쳐서 교회뒤로 꼬부라져 들면서 아름다운 동네가 나왔다. 집들이 크고, 딸려있는 정원도 크고, 주변의 나무들은 울창하였다.

밤 사이에 내린 비로 초목들은 물씬하게 물을 머금은 안도와 희열에 차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새파란 소년기를 막 탈피하고, 성숙의 영역으로 도약하는 소년처럼 힘차고 푸르러웠다.

"쏴아"하고 바다의 물결이 몰아치듯 거센 바람이 불어올때, 북미 특유의 크리스마스트리가 흡사 코끼리의 귀를 연상케 하는 나무가지를 유유히 올렸다 내리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였다. 마치 하늘을 푸른색으로 페인트 칠이라도 할 듯이…

주일아침이라 사람의 소리도 차소리도 없다. 다만 "까르르-깔"하고 이름모를 새소리가 정적의 막을 찢는듯 날카롭게 들려왔다.

이 맑은 공기, 이 평화로움! 6월은 쉬지않고, 하늘로 땅으로 생의 욕망을 펼쳐가고 있었다.

다음골목으로 접어드는 길모퉁이집 정원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흙을 만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나 동이나 몸짓에서 부자의 오만은 볼 수 없었다.

울타리가 없어서 내가 너의 집을, 네가 나의 집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이 구김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땅들, 새삼스럽게 느끼는 자유스러운 기분이다.

비록 우리에게는 아직도 낯선 땅이지만 이곳에는 그 바글바글 끓는 고국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다. "큰손" "작은 손", 듣기에도 염증이 나는 "X 여인"하는 유행어도 없다. 행여나 구정물이라도 튕겨 오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없다.

내 힘껏 떳떳하게 사는 우리들! 이것이 축복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자랑이 아니겠는가?

총총걸음으로 교회로 돌아가는 내 발밑으로 프로펠라같은 단풍씨앗들이 "후두둑"하고 떨어졌다. 그것들이 젖은 보도를 덮으면서 6월은 짙으게 짙으게 익어가고 있다.

海外걸작漫畫

『여보, 안돼요—애기가 깨어요』

"George! Please don't—you'll wake the baby!"

구독신청은 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8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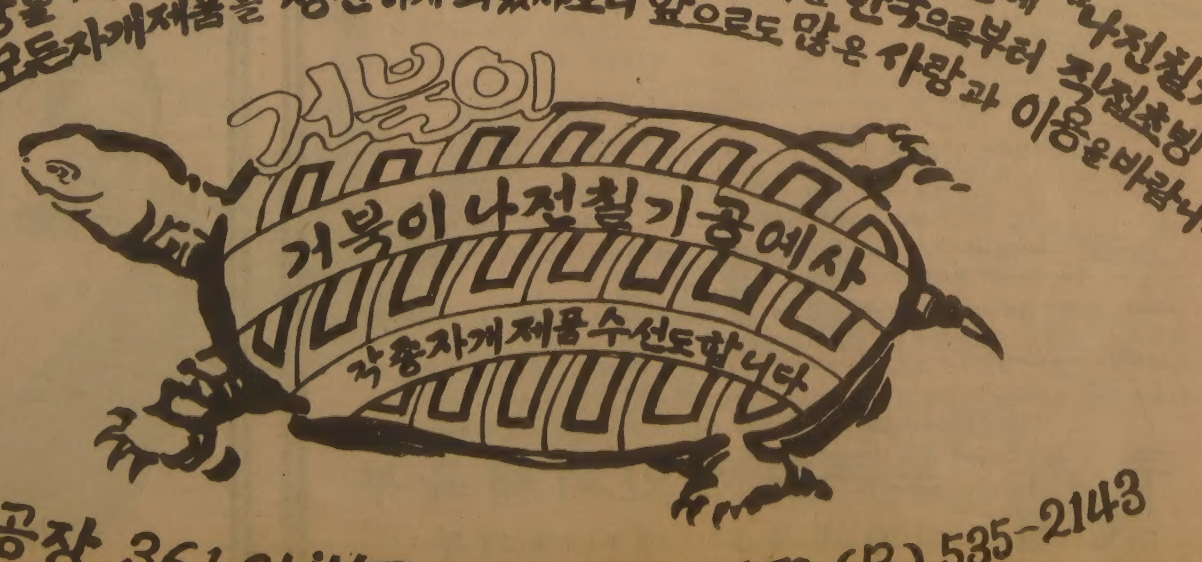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안 내 말 씀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날로 성장해온 거북이는 이번에 "나전칠기" 자개공장을 새로 설립했읍니다. 나전칠기 전문기술자를 한국으로부터 직접초빙 현지에서 모든자개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사오니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이용을 바랍니다.



공장 361 CLINTON ST. TORONTO. (B) 535-214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아르헨軍、英國에 항복

15일 上午9시 全포클랜드 武裝해제進行

英國首相室 정식발표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15日=聯合】동서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 수비군이 현지시간 14일하오9시(한국시간 15일상오9시) 영국군에 공식항복했다고 15일 영국수상실이 발표했다.

포클랜드의 영국군 사령관 제레미·무어 소장은 『아르헨티나 수비군사령관 마리오·메넨데스 소장은 6월14일 밤9시 포트 스탠리에서 동서 포클랜드의 전아르헨티나수비군및 그들의장비와 함께 본인에게 정식항복했다』는내용의메시지를 마거리트·대처 수상에게 타전했다. 제레미·무어 소장은 대처수상에게 보고한 메시지에서 『영국군에 투항한 아르헨티나군과 그들의장비를 본국으로귀환시킬 준비를 진행중』임도 밝혔다.

제레미·무어소장은 또 『포클랜드는 다시 현지주민이소탕하던 영국정부의 통치하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14일 하오 4시(한국시간 15일 새벽4시) 양국군이 비공식 휴전에 합의하고 수비군 사령관 메넨데스 소장과 영국군부사령관 존·워터즈장군 사이에 항복조건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포트 스탠리 아르헨티나수비군 진지에서는 白旗가 펄럭일뿐 죽음같은 정적이 온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이미 아르헨티나 수비군의 포트스탠리외곽 참호 진지 기관총좌를 유린한뒤의 영국군 해병대 공정대 네팔 구르카병사들은 전투를 멈춘채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넨데스 수비군 사령관이 항복문서에 공식 서명하기에 앞서 마거리트·대처 영국수상은 의회에 나와 『영국군이 포트스탠리교외로 육박하자 아르헨티나군은 무기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일부 아르헨티나군 진지에는 白旗가 내걸렸다는 보고가 들어 왔다』고 밝혔다.

대처수상은 『현재 영국군 부사령관 존·워터즈 준장과 아르헨티나 수비군사령관 마리오·메넨데스 장군 사이에 아르헨티나군의 항복문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있다』고 확인하고 『자위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발포를 중지하도록 영국군에 명령했다』고 말했다.

대처수상으로부터 아르헨티나군 항복보고를 접한 영국 의회지도자들은 여·야를 막론 열광했다. 대처수상의 강경노선을 비판해온 푸트노동당 당수도 대처수상에게 공개적으로 축하의뜻을 표했다.

수상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앞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어 노래를부르며 환호하고 있었다.

아르헨軍 休戰발표

한편 아르헨티나 합참본부는 코뮈니케 1백63호를 통해 국영라디오TV방송을 통해 발표 『14일하오4시를 기해 비공식 휴전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정부는 14일 3군사령관과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를 소집, 포클랜드상황을 검토했으며 이와는별도로 레오폴도·갈티에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육군의소장급및 준장급전원이 참석한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아르헨티나의 노티시아스 통신은 메넨데스 수비군사령관이 영국군이제시한 항복조건을 본국정부에 보고하기위해 급히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소식통들은 영국군이 포트스탠리서쪽 교외에 있는 총독관저 1.6㎞까지 접근, 포위망을 압축해 총독관저를 자동소총 사정거리안에 두고 있다고 현재의 포클랜드전사상황을 전했다.

포트스탠리의 아르헨티나군 7천여명은 14일상오이후 6천명의 영국군에 포위된채 육해공3면공격을 받아왔다.

◇英사령관 메시지

무어장군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클랜드시간으로 6월14일 하오9시(한국시간15일상오9시)를 기해 아르헨티나의 마리오·메넨데스소장은 포트 스탠리에서 東西포클랜드에 있는 아르헨티나軍 全兵력을 이끌고 항복했다. 아르헨티나 병사들의 본국귀환작업과 무기、군수물자의 수집、아르헨軍의 무장점검및 해제등을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포클랜드군도는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다시 영국정부의 관할아래 들어왔다. 여왕폐하만세』

아르헨軍 撤收발표 司令部 항복을是認

【부에노스아이레스15日UPI=聯合】아르헨티나軍사령부는 포클랜드에서 자국군을철수시키기로 영국과 합의했다고 말함으로써 「항복」사실을 인정했다.

◇歡呼받는 대처首相 英軍이 포클랜드群島 탈환을 위한 막바지공세를 펴면서 포트스탠리소재 아르헨티나軍 수비대를 공략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14일밤 대처 英수상이 런던시내 다우닝街 입구에서 열광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런던15日AP電送=聯合】

株式발행 資本金 4배까지

法務部 商法개정試案、10월 정기國會에

株券 최저額面 萬원으로

資本金 下限線 2천만원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천만원으로 명문화하고 자금조달방법의 폭을 늘리며 감사의 권한을 대폭강화하는것 등을 골자로한 상법개정시안이 마련됐다.

법무부 상법개정심의 위원회는 15일 비현실적인 현행 상법을 대폭 손질한 1백20개조문으로된 상법개정시안을 마련, 학계와 경제계등각계에 보내 의견을 들은후 오는 8월말 최종시안을 다듬어 10월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은 영세자본주들의 주식회사제도 남용을 막기위해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이 2천만원 이상이되어야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했고 휴면(休眠)회사의 정리방안으로 최종등기후 5년마다 회사 계속여부를 신고토록했으며 신고하지않은 회사는 해산된것으로 하도록했다.

또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주식회사가 발행할수있는 주식의총수와 이미 발행된 주식의총수의 비율을 4대1로확대(현행2대1)하고 ▲주식회사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할수없던 사채발행한도를 총액의 2배까지 발행할수있도록하며 ▲현금만으로만 이익배당을하는 현행규정을 주식으로도배당할수 있게했으며 ▲배서(背書)또는 양도증서 없이 주권교부만으로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양도할수 있게했다.

감사의 기능도 현행회계감사외에 업무감사권을 부여, 감사의 권한을 대폭강화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투자자원 사채권자를보호하기위해 ▲배당금은 주주총회 배당결의후 2개월이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고 ▲주권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주주가 원할경우 주권발행을 안할수있게 했으며 ▲명의상주주와 실질상주주가 같지않을 경우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할수있게 했다.

이 시안은 이밖에 ▲현행주식액면 5백원, 사채 1백원을 각각 1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전환사채및 신주인수권부(新株引受權附)사채를 제외하고 사채등기제도를 폐지, 등기사무와 회사사무의 간소화 ▲유한회사의 최저자본액 현행10만원과 소상인5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인상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시안이 긴급사항 개정에따른 이해상충정도, 국민생활파급효과의 정도를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밝히고 「보험편」「해상편」은 아직 국내 국제여건이 성숙되지않아 계속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관계長官 추가引責 가능

오늘낮 靑瓦臺회담

景氣활성화·「政治解禁」도 擧論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형식으로 16일 午餐을겸해열리는 청와대3黨대표회담을 하루앞둔 15일 民正·民韓·국민당등은 각각 모임을 갖고 회담에임하는 최종대책을 마무리지었다.

民正黨은 이날상오 李載滢대표위원을비롯한 黨 간부들이 모임을갖고 청와대회담에 대한 최종대책을 점검했으며 民韓·국민당도 각각 黨務회의와 黨職者회의를열어 黨內外의의견을 최종 취합, 대책을 마무리지었다.

청와대당국은 이번 3黨대표회담이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될수 있도록 陪席者數를 가급적 줄일방침이며 회담결과의 발표는 黃善必청와대 대변인이 회담후별실에서 대기할 예정인 3黨 대변인과의 협의를 거쳐발표하되 회담에서 오고간 내용을 충실히 발표키로했다.

청와대회담에 임하는 與野의 입장은 時局수습과 景氣회복및 경제질서正常化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을같이하고 있으나 野黨측이 주장하는 정치활동 被規制者解禁、국회·언론의活性化등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견해차이를 보이고있으며 관계장관의 追加引責에 대해서는 民韓·국민당뿐만 아니라 民正黨에서도 擧論된바있어 追加改閣의 가능성은 높은것으로 전망되고있다.

會談끝난뒤에 各黨대책회의

한편 民正黨은 靑瓦臺회담이 끝나는대로 劉彰順총리와 李載滢대표위원이 참석하는 黨政정책조정회의를 정부與黨연석회의를 갖고 회담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에따라서는 3黨3役들이 합동으로나 개별적으로 만나는것도 고려하고있다.

民韓·국민당도 청와대 회담이 끝난직후 이날 하오 각각 黨務회의를열어 회담결과를 보고받기로했으며 필요할 경우 의원총회를 소집, 회담결과에따른 대책을 협의할예정이다.

埃, 이스라엘傳達 팔休戰요청 覺書

【카이로·텔아비브14日NA AS=聯合】이집트정부는 레바논 사태와 관련, 팔레스타인의 휴전요청을 이스라엘에 전달했다고 부트로스·갈리 이집트 외교담당국무상이 14일 확인했다.

"PLO·시리아軍 逐出"

이軍、베이루트封鎖…아라파트 外國公館피신

【뉴욕15日UPI=聯合】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은 수도베이루트로 통하는 모든 접근로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포위망에 갇힌 야세트·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은 한 외국대사관에 피신했다고 이스라엘 보도들이 15일 전했다.

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군 사령관은 텔아비브에서 가진 회견에서 PLO가 무릎을 꿇고 휴전을 요청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PLO하부조직은 이미 궤멸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를 포위한데 이어 탱크와 지상군을 베카계곡쪽으로돌려 2만5천명으로 추산되는 시리아군을 레바논에서 축출하는 작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탄장군은 베이루트시외곽에서 PLO와 이스라엘군의 충돌이 간혹 발생했으나 시리아군과의 전투는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라파트의장은 베이루트시내의 한 외국대사관으로 피신했다고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ABC뉴스는 팔레스타인 소식통들을 인용한 파리발보도로 이스라엘은 PLO측과 간접적인 접촉을 취하면서 PLO 고위지도자 10명의 항복과PLO의 레바논철수를요구하고있다고 전했다.

"모든外軍 동시撤收를"

헤이그 레바논事態 새平和案

【워싱턴16日UPI=聯合】이스라엘·레바논 분쟁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고있는 미국은 14일 이스라엘의 이번 레바논침공을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中東평화협상추진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의도아래 이스라엘軍의 일방적 철수를 촉구하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변경, 이스라엘軍의 철수는 시리아軍및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철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철수전제조건으로 레바논에 주둔한 모든외국군의 동시철수를 강조한데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면침공을 팔레스타인자치협상과정을 포함한 전체 中東평화협상을 재정립하는계기로 이용할것을희망하고있다고 밝혔다.

社會漫評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만…

사우디에 弔問使節

劉총리、파드國王 慶祝도

정부는 지난13일 서거한 사우디아라비아 王國의 할리드 국왕에대한 弔意와 파드 신임국왕 즉위에대한 경축을 위해 劉彰順 국무총리를 단장으로한 특별사절단을 18일 보내 19일 리아드王都에 도착토록 결정했다.

대통령특별사절단은 劉총리를 비롯 張禮準 駐사우디대사、李宣基동자부장관、金在益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趙英吉총리비서실장등 8명으로 구성된다.

鄭然春총리공보비서관은 15일 하오 이같은 정부결정을 발표하고 특별사절단은 오는 24일께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劉총리등 대통령特使는 弔意와 慶祝임무를 마치고 사우디에서 일하는 현대건설등 근로자들을 방문、격려하고 사우디정부를 비롯 아랍국정부고위관계자들과의 회담도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在京관공서에 弔旗

국무회의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할리드國王의 逝去에 즈음하여 16일 在京관공서에 弔旗를 게양키로 결정했다.

離任 和蘭대사禮訪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5일 하오 청와대에서 離任하는 네덜란드·반·벤·베르크駐韓네덜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修交勳章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朴贊鉉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對日逆調 논의 外務部·관계부처

외무부는 15일하오 孔魯明 차관보주재로 경제기획원·재무·상공·농수산부등 관계부처국장급회의를 갖고 對日貿易逆調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65년 國交정상화이후 81년까지 우리나라의 對日무역逆調總額은 2백19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3월말까지 4억4천8백만달러의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무역역조를 시정하기위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몇차례 촉구했으나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로 전혀 개선되지않고있다』고 지적, 『이번 모임은 무역赤字폭을 줄이기위한 실질적인 對應策을 강구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유엔亞·太經濟委 사무총장 오늘來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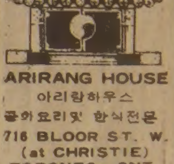
유엔 아시아·太平洋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S·A·M·S·키버리아 사무총장(방글라데시人) 부처가 李範錫외무장관 초청으로 16일 來韓한다.

키버리아 사무총장은 2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하고 외무、재무、상공、농수산부등과 과기처장관、무역협회장및 韓·ESCAP협력증진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새마을운동과 산업시설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地平線

무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의 포트 로돌벨바닷가。캠핑용천막이나 슬리핑백을 짊어지고 수영복을 손에든 1만명이상의 대학생들이 줄이어 모인다。수영하고、잠자고、놀고、술먹고、모래바다에 딩굴고、제멋대로 1주일을 보낸다▼방학이 되자 마자 책을 내동댕이친채 바닷가에모인 이들은 태양과 낭만의 예찬자들이다。젊은이들의 대이동으로 미국동부전체가 떠들썩하지만 떠날때는 말없이 썰물처럼 흩어진다。비키니 스타일의 아가씨들과 구리빛으로 피부가 탄 총각들이 꿈에서 깨어난듯 따로따로 아무미련없이 봇짐을 싼다。同行을 구하는 스피커소리가 귀머리에아우성을 치지만 海邊의 大饗宴이 끝난자리엔 담배꽁초와 빈맥주병만 남는다▼민족이동을 방불케하는 젊은이들의 來襲으로 1백50만달러、우리돈으로환산해 11억원의 매상이 오른다고하니 놀랄일이 아니다。일광욕을 즐기는 젊은이도있고 향락을 목적으로한 젊은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풀고 자유를 찾기위한 것이라고 한다。두번다시 만날(아프터)약속도 없고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알필요도 없는 것이 이축제의 불문율인 모양이다。▼남의 얘기같지만 멀지않아 포드 로돌벨의 饗宴 비슷한 풍속이 우리나라에도 닥쳐올지 모른다。아직 초여름이라 성급한것 같으나 우리젊은층 사이에선濟州해수욕장얘기가 벌써 입에오르내리고있다。신문지상에는 해수욕시설 입대광고가 매일같이 자주난다。동해안 어느 해수욕장 부근의 都市오물처리가 잘안됐다는 기사는 눈에거슬린다。얼마전에는 해운대의 한 해수욕장이 오염됐다는 소식도 있었다。▼멀리보이던 해수욕장이나 시내의 풀장도 여름만되면 일반서민생활과 떼어야뗄수없는 가까운 존재인것을 깨닫게된다。콩나물시루처럼빽빽이 입장시킨 풀장、구정물처럼 탁한수질、바가지 음식값과 교통요금、서비스不在의여관、눈뜨고 못볼 행락풍기가 올해엔 없어야 할텐데…누구나 단속을 바라면서도 또다시 되풀이 될 연중행사일것 같다。각종 요금의 정찰가격표시제와 풀장의경우 입장객정원제도 꼭필요할것같다。조난구조반배치를 더강화해야할것은 물론이다。▼도시민이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위해 모처럼찾는 여름의 수영장관리에 세심한 대비가 절실해지는 철이다。수영객들이 기분을 잡치지않게 하는 배려와 함께 청소년들의 사전선도에도 신경을 특히 써야 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갈비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공 고

금번 한인회에서는 교민 체력향상을 위해 한인친선야구대회를 아래와 같이개최합니다.

일 시 : 7월31일(토) 오전 8시30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 야구장
참가비 : 팀당 $60(주장회의때까지 납부)
종 목 : O.B. 팀 (전원이 30세 이상으로 구성)
대표팀 (중복출전 불가)
주장회의 : 7월23일(금) 오후 7시30분 한인회관
시 상 : ㅇ.대표팀 1, 2, 3등
최우수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ㅇ.O.B. 팀 1, 2등, 최우수선수상, 미기상, 감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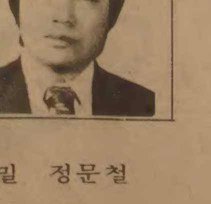
●OASA(온타리오 아마추어 소프트볼 어쏘시에이션) 룰을 적용하며 상세한 것은 주장회의에서 결정함.

연락처 : 하주용 ☎ : 769-5956 박재선 ☎ : 755-6434 브랜든운동구 ☎ : 598-3732
대회장 : 박인순, 고문 : 김문량, 진행위원장 : 박재선
심판위원(무순) : 정세용, 조동식, 박세영, 윤호영, 장인택, 최광준, 박재선, 조용덕
찬조금 명단 : 백이삼 $100 서춘원 $100 이희용 $100 서동헌 $50
이인모 $50 호세환 $50 표봉길 $60 조규혁 $50 윤홍탁 $50

주 최 : 토론토한인회체육부
후 원 :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세계선교를 위한

성서도예 서예전



한밀 정문철

소개
숭전대학교육과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81년 미국 베델대학 초청
성서예술 세미나및 순회
전시회(6회)

도예와 서예를 통해 기독교문화를 소개시키고자 전세계를 순회하며 도자기및 서예품 전시회를 갖고있는 한밀 정문철전도사의 토론토 전시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많은 교민들의 참관을 바랍니다.

시일 : 1982년6월24일(목)~28일(월)
오전11시에서 오후8시까지
장소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단, 6월27일(주일) 오후에는 토론토 영락교회당에서 전시)
전화연락 : 535-6864
423-9880

주최 : 안방문화 복음 화회

「勝戰환호」와 「성난 눈동자들」…

스탠리港 陷落되던날… 兩國의 표정

◇"英의 해적행위"규탄 英國과 아르헨티나의 휴전소식을 전해들은反英시위자가 14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있는 라·나시온신문사앞에서 「英國의 해적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간판을 들고 시위하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14日AP特約=聯合】

英國

"大英제국은 위대해졌다" 대처, 群衆과 감격의악수

【런던15日AP·UPI=聯合】대처영국수상이 13일 의회에서 아르헨티나항복을 발표하자 의원들은 열광적인환호의 박수를보냈으며 다우닝街 10번지의 수상관저밖에는1백여명의군중이몰려와 영국군의승리를 기뻐했다.

대처수상이 승전을 발표하는 하원의좌석은 전례없이 의석이 가득찼으며 승리의 열기로 가득찼다.

대처수상의 남편 데니스·대처는 방청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부인대처의연설을 경청했다.

들뜬 축하 분위기때문에 하원의 공해관계위원회와 일부각료는 스코틀랜드의 대기오염통제에관한 의사일정도 취소해 버렸다.

대처수상이 의회에서 역사적인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날밤 수상관저앞에 몰려든 군중들은『대영제국은 다시 위대해졌다』『신이여 여왕을구하소서』라고 외치며 대처수상에게 악수를 하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대처수상도 경호원의 열려에 아랑곳없이 승리를 합창하는 군중과 어울려 악수를 나누었다.

아르헨티나 점령군에의해 축출된 전포클랜드총독 렉스·헌트경의 부인은『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기뻐했다.

렉스부인은 만찬회에 참석중 승전소식을 듣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축하를했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대변인 데이비드·오언은『우리는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이 전적으로 무조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의 신문들은 영국의 승리를 치켜세우고「포클랜드의 탈환」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런던 데일리 익스프레스紙는 전단제목과함께 승리를뜻하는 커다란V자를 그려넣고 중간에 대처수상의 얼굴사진을 실었다.

데일리미러紙는 영국의 승리를 선언하고「하늘이 영국을 알아보았다」「우리는 승리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아르헨

"우리潛艦 뭘하고 있었나 항복말라、우리에게 총을"

【부에노스아이레스15日AP·UPI=聯合】패전소식이전해진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는 군사정부에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들끓었다.

『그들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에겐 죽어서 돌아오는 젊은이들 뿐이다』라고 한 택시운전사는 외쳤다.

성난 군중 1백여명은 대통령 궁밖에 몰려서서 갈티에리군사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군중은 청백색 아르헨티나 깃발을 흔들면서『국민은 항복하지 않는다. 반역자는 물러가라. 총살형에 처하라』고 소리쳤다.

부에노스 중심가의 일간 라·나시온紙 전환 속보판앞에는 약2백명의 시민들이 모여 들어『아르헨티나군은 항복해서는안된다. 우리에게 총을 달라』라고 외쳐댔다.

한노인은 주먹을 불끈쥐며『그들이 (영국) 우리보다 15배나 많은 군사력을 투입한 것은 불공평하다』고 소리쳤다. 어떤 사람은 『조국이여 영원하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부의 전쟁수행방식을 비판하면서 포클랜드점령이후 아르헨티나군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인데 불만을 토로했다.

한남자는『왜 우리젊은이들을 영국의 프로급직업군인과 싸우게 했는가』라고 말했다. 또어떤이는『우리잠수함들은 뭘하고있었나』라고 소리쳤다.

한편에서는 중년신사와 청년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중년신사는『영국은 전쟁을 한반면에 우리는 술래잡기뿐이다.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영국은 그렇게했고 우리는 제네바협정이란 전쟁규칙에만 집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은『전쟁은 공군만 했다. 해군은 해안에만 머물러 있었다. 육군은 오직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만 유용할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다』고 분통해했다.

정부청사앞의 데·마요(5월) 광장에 국기를 든 1백여명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항복하지 말라』고 외쳤다.

좌익진보당지도자인 라울·알폰신은 포클랜드분쟁의 책임을 물어 3인군사평의회의『즉각적인퇴진』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그는『대포는 정적에 싸였다. 지금이 국민의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주장하면서『민주화를 위한 민권이양』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76년도 쿠데타로 모든정당활동이 중단되기전에는 아르헨티나의 제2정당이었다.

한편 수천명의 시민들이 혹한의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소식을 알기위해 카예·플로리다街로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反英포스터를 거들떠 보지도않고 있었다. 한포스터는『죽음을…』이라는글자가써어진 찢겨진 유니언재크였다.

【런던15日UPI特約=聯合】아르헨티나군의 점령후에 영국으로피신한포클랜드주민들은 승전소식이알려지자 하루빨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정부에 원하고있다.

포트스탠리에서 총독으로 근무했던 렉스·헌트씨의 부인 말비스는 아르헨티나가 항복한다는 소식에 샴페인이 없음을 아쉬워하면서『믿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다니 너무행복해요』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늙은獅子」상처투성이의 榮光

포클랜드戰爭 74일 무엇을 남겼는가

國際焦點

포클랜드도의 포트 스탠리공항에 아르헨티나의 청백기가내려지고 영국의 유니언재크기가 다시올랐다.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포클랜드도를 강점한지 74일만이다.

영국으로서는 잃었던땅을 되찾아 아르헨티나의 무력도발을 응징한것이되고 아르헨티나로서는 1백49년만의『失地回復』의 꿈이 다시한번 좌절된것이다.

영국은『늙은사자의 건재를 보였으나 그 댓가는 너무 컸다』. 인명희생은 차치하고라도 신예구축함 셰필드호등 5척의 신예함정의 격침등 소요戰費만도 70억달러에 상당했다.

포클랜드전쟁을『체면의 전쟁』이라고한다면 영국은『상처투성이 영광』을 얻은셈이다. 아르헨티나는포클랜드도의 전쟁을 식민세력의 구축이라는 명분아래 續독립전쟁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켰으나 힘의 대결에서 무참히 참패, 그들의 유별난『긍지』에 손쉽게 씻기어려운 상처를 입은것이다.

變數많은「포島운명」

그러나 포클랜드도 사태는 이제 제1라운드가 끝난셈이다. 전후의 포클랜드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데는 많은 변수가 작용하게되어있다.

영국이 戰勝을 했다고해도 일방적으로 대처수상의 입맛대로 요리할수없게되어있다. 아르헨티나가敗戰을 했다고는하나 전쟁의통상개념에서처럼 모든것을 잃은것은 아니다.

포클랜드전쟁이 제한전쟁이었던만큼 戰勝의 댓가도 제한적이다. 영국은 아르헨티나의 內政에대해 어떠한 입김도 불어넣을수 없는 것이다.

포클랜드도 사태의 궁극적인해결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말비나스도(포클랜드도)는 아르헨티나의 것이다』는 입장도 어느정도까지는 들어주어야 할것이다. 지리적으로보아 포클랜드도는 아르헨티나로부터는 겨우 6백㎞, 영국으로부터는 1만4천㎞ 떨어져있어 장기적으로 보아 아르헨티나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다. 영국이 아르헨티나에대해 예상외의 고전을했던것도 이지리적인 불리때문이었다.

아르헨티나의 권위지인 라선지의 편집부국장 페르난도·에우가스는『영국이 戰勝을해도 말비나스도를 계속지키기는 어려울것이다.아르헨티나는 본토에기지를둔 공군력을동원, 계속 교란전을 펼수가있을것이다』고 持久戰의 가능성을비쳤다. 그런가하면 어느시민은『2、3년동안 군비를 강화한뒤 영국군의 방위력이 약화된 틈을타서 다시 점령을 시도하면 될것이라』고 역시 長期戰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않는사람들의 소박한 생각이지마는 이것이 거리의 구두닦이부터 최고의 권력자에 이르기까지의 똑 같은 생각이다.

영국은 좋든 싫든 장기적으로는 아르헨티나의同意를 얻지않는한 포클랜드도의 장래에대한 안정적인타결책을 찾을수 없을것이다.

戰費 70억弗… 이기고도 쓴맛 남아

百50년만의「失地회복 꿈」물거품

「체면戰爭」서 감정대립으로…장래安定엔 숱한 문제점

아르헨 英國

그러나 영국이 의도하고있는 戰後의 포클랜드처리방안이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배제내지는 최소한으로 반영하는선으로 나오고있어 남대서양에서의 평화가 쉽사리 정착되기는 어려울것같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모두 이섬보다는 감정이 팽배한 현재의 여건아래서는 항구적인 타결책이 마련되기 어렵다.

영국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대처수상은 단기적으로 포클랜드도를 아르헨티나의 4·2점령이전상태로 복귀하고 아르헨티나의 교란공격에 대비, 포클랜드도의 상설방위체제를 구축할것이라고 한다.

대처수상은 이처럼 포클랜드도에 대한 영국의 領有權확립을 굳힌뒤 포클랜드도에 일종의 독립국지위를 부여, 국제적협정으로 이 독립을 보장되도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포클랜드도전쟁기간중 영국의 대처수상이 강력히 주장해 왔던것은 1천8백명 포클랜드도주민들의 自決權 존중이었다.

영국으로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主權을양도할수없다는것이 일관된 기본입장이겠고 이러한 입장은 값비싼戰勝을 거둔 현재 더욱 굳어져 가고있다.

아르헨티나로서는 비록 敗戰은했다해도 영국측의 이러한 전후처리 방안들은 승복할수없을 것이다.

포클랜드도의 戰後처리에 예상외의 변수로 작용할수있는것은 아르헨티나、영국의 內政이다.

현재관심의 초점은 아르헨티나의 권력구조의 개편에 모아지고있다. 아르헨티나의 3인군사평의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敗戰의 책임을 져야할것으로 관망되고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일부정치인들이 요구하듯 선뜻 軍政이 民政으로 넘어가지는 않을것이 확실하다.

아르헨티나 건국 1백50년동안에 군부가 뿌리깊게 정치에 뿌리박아온대신 정당정치는 해본경험이없어 授權政黨이없는 상태다. 다만 軍部에 맞설수있는 조직세력으로는 페론주의자들로 불리는 勞組세력이 있을뿐이다.

勞組는 아르헨티나군부가 지난4월2일 말비나스도(포클랜드도)를 점령하기 직전인 3월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급료인상, 경제정책의 쇄신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잠재적인 힘을 과시했었다.

갈티에리 대통령은 기회있을때마다 부인해왔지만 아르헨티나의 비판적인 지식층에서는 4·2 말비나스도점령은『軍政연장을 위해 군부가 저질러놓은 도박이었다』고말하고있다.

그러나 勞組세력도 과거 페론정권의 失政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못하고있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戰後권력구조의 개편은 군부에의해서 결정될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민간정치지도자들이 주장하듯 軍部와 민간정치인、노조의 聯立정부형태이든 또는 현재 軍정치위원회가 작업하고있는 정당조직법에의한 民政이든 軍部에의해서 좌우될것이 확실하다. 戰後정치형태가 어떻게되든 고율인플레、外貨부족등 경제적 難題를 풀어야할것이다. 그러나 주목되는것은 戰後의外交路線이다.

『포클랜드』전쟁의 敗者는 미국이다』라고 아르헨티나는 주장한다.

이번 전쟁에서 南美국가들은 칠레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똘똘뭉쳐 아르헨티나를 지지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페루는 물리적 지원까지 했다.

아르헨티나가 급격히 左旋回는 하지않더라도 미국과 소련에대해 等距離外交를 펴갈것은 확실하다.

아르헨티나의 戰後정치발전이 어떻게 전개되든 포클랜드도에 대한 기본입장은 변하기 어렵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와의 무너진 외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戰後 포클랜드도 처리과정에서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어느정도 두둔하고 나서야 할것이다.

영국여론도 戰勝한이상 대처수상의 강경일변도정책을 지지만은 하지않을것이다. 2차대전후 戰勝을 가져온 처칠수상의 保守黨정권을 권좌에서 물러나게했던 前例가 있다.

장기적으로보아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현지도층이 개편되고 미국이 외교적중재에 다소 衝擊을 회복하면 포클랜드도사태는 평화적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것으로 보인다.

【李梓昇특집부장대우 82년5월7일부터 6월2일까지 아르헨티나에 특파현지취재】

◇다시 올리는 유니언·재크 73일만에 아르헨티나로부터 다시탈환한 포클랜드군도에 영국기 유니언·재크가 올라가고있다.

포클랜드 通信

아르헨戰費 30억弗

○…73일간 계속되어온 포클랜드전쟁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전비로 30억달러이상을 소비했으며 막대한 인명과 물자의 손실을입었다.

영국국방성의 발표를 중심으로한 13일현재 양국의 피해상황은 다음과같다. (양국의 피해는 전투이외의 사고도 포함)

英國 2백8명死亡 아르헨機94대 파손

◇영국측피해

▲병력=사망또는 실종 최소한 2백8명、부상 최소한 2백44명

▲전투기=수직이착륙 해리어전투기및 전폭기 8대、헬리콥터 11대(시·킹5、웨섹스2、가젤4)

▲함정=침몰 5척(4천1백t급 미사일 구축함 셰필드號、코번트리號、3천2백t급 미사일 프리기트함 아던트號、앤틸로프號、1만4천9백46t급 징발컨테이너 아틀랜틱·컨베이어號)

▲대파(사용불능)2척(5674톤급상륙함 서·갤러허드號·서·트리스트램號) 반파 10척 (구축함2척·프리기트함6척·상륙함2척)

◇아르헨티나 피해

▲병력=약2천6백64명의 육·해·공병력이 전사하거나 포로가됨 (아르헨티나는 지난 5월30일 현재사망82명 실종3백42명 부상1백6명이라 주장)

▲전투기=약94대가 파괴되거나 노획됨 (스카이호크전폭기35·미라지Ⅲ및 대거전투기25·A58지상공격용 푸카라機13·멘토르T34공격훈련기4·B62캔버라폭격기2·아에르마치M339전폭기1·기종불상의 경비행기3·C130허큘리스수송기1·헬리콥터7·CH치누크機1·영국군노획푸카라機2)

스페인 爆發사고 월드컵 개막직후

【마드리드14日AFP=聯合】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고있는 스페인의수도 마드리드에서 14일상오 4개의폭탄이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바스크지방에서는 전날밤 총격사건으로 민간인 1명이 피살됐다.

中共 국방상耿飇등 軍대표단 平壤도착

【서울=聯】중공국방상 耿飇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북괴를 공식 방문키 위해 14일 平壤에 도착했다고 이날 북괴 방송들이 보도했다.

중공고위 군사 대표단의 訪北을 맞아 이날 북괴는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비롯、신문、방송등을 통해 일제히 환영사설등을 싣고 耿飇의 이번 平壤방문으로 중공군과 북괴군간의 전투적 친선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선전했다.

駐韓美軍철수 실현 中共 결코協力안해

모스크바放送

【서울=聯】소련의 모스크바방송은 12일『중공정부는 말로는 주한미군철수를 지지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요구의 실현에 결코협력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이방송은 이날 소련의 역사학자이며 모스크바방송 해설위원인 느리마치코프의 중공과 북괴관계에관한 최신논문을 인용、이같이 지적하고『중공당국은 미국과 공모하면서 남한을 포함하는 극동에서 미국의 군사력을유지하는 노선을 밀고나가고있는데 이같은정책은 사실상 북한의 방침에의한 통일을반대하는 바들을 직접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사우디國王빈소 劉국무총리조문

劉彰順국무총리는 15일상오10시 朴贊鉉총무처장관과 함께 서울新門路 駐韓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마련된 할리드 사우디前國王의 殯所를 참배、焚香하고 故人의 명복을 빌었다.

醫療시행령 고쳐

국무회의는 15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을 고쳐 의료보호대상자의 2차진료비중 현행 50%만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던것을 앞으로는 50~80%범위안에서 부담토록 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특수성에 따르도록 했다.

海外토픽

고달플땐 自殺생각

★홍콩中學生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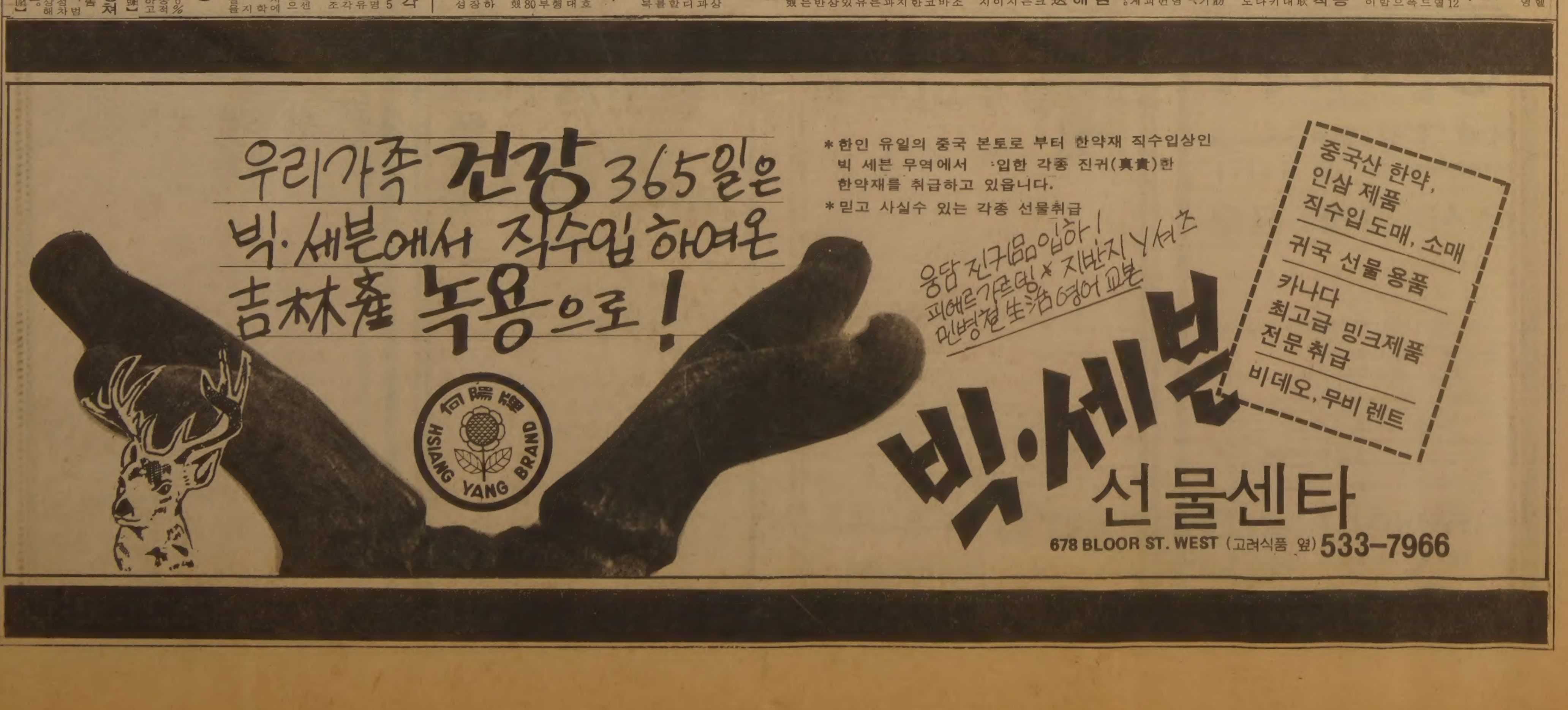
홍콩중학생의 5명중 1명꼴이 인생에 실패했을때 유일한 대안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최근의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홍콩의 한 학생카운슬링센터가 중학생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구조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4%가 학교나 가정에서의 생활이 지나치게 고달플경우 자살을 택하겠다고 대답했으며 6%는 실패를 벗어나는 영웅적 행위로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것. 【홍콩=聯】

관대하면 子女망쳐

★中共紙 犯罪증가警告

버릇없이 자란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중공 상해시의『해방일보』가 보도. 【北京=聯】



前後期 대학自律에 맡겨

문교부 後期大의 전기환원은 禁止키로

문교부는 대학의 전·후기조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鄭泰秀문교차관은 15일 『대학의 전·후기는 강제로 조정하지않고 대학의 자율성을살펴 스스로 결정토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고 『현재 전국에있는 대학의 전·후기 구분은 그대로 고정시켰 놓고 전기가 후기로 돌아가는것은 계속 권장하겠으나 후기가 전기로 환원하는것은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전기에 편중돼있는 전국의 종합대학가운데 문교부의 권장을 받아들여 후기로 돌아갈 대학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同一大 科別조정·現行대로 실시등

대학敎育協 2개안건의… 17일 결정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14일 전국대학 총·학장들로구성된 이사회를열고 대학 전·후기조정 문제를협의▲현행제도대로 실시하거나▲각 대학의 의사에 맡겨 동일대학안에서 과별 또는 단과대학별로 전·후기로 나누는 방안등 두가지안을 결정, 이날 문교부에 건의했다.

문교부는 이두가지안중 한가지를 택해 오는17일까지 최종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어느것을 선택해도 대학의전·후기조정문제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않게될 전망이며 내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는 올해와마찬가지로 사실상 전기에 국한될것으로보인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두가지 안중 제2안은 대학의모집인원중일정비율을 (과별·단과대학별포함) 전·후기로나눠 모집하는것이며 선발비율은 대학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방안도 현실적으로▲같은대학안에서 전·후기모집을한는데 따른 학생들사이의 위화감▲입시관리의 번거로움 ▲전·후기구분의 기준이 확연치않은점등 어려움이있다.

문교부는 당초 모든 종합대학들이 전기로만 국한되어 있어 입시에서 나타나는 눈치작전등 입시병폐를 해소하기위해 현재 84대16의 비율로 편중된 대학의 신입생 수용인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기위해 꾸준히 애를 써왔다.

換錢해간 2명 身柄확보

—34만弗사건 부로커 3명드러나

4개銀行員등 16명을 신문

白紙 TC發給사실 밝혀내

◇金福姬씨등 2명이 이민수속을 의뢰했던 서울鐘路區淸進洞 南美이주공사。검찰은 직원 2~3명을 불러 명의도용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金浦공항의 미화34만달러 밀반출 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15일金福姬씨(25·경기東豆川市生淵洞558)등 3명의 가짜 여권을 사용, 시중 4개은행에서 여행자수표를 포함한 거액의 외화를 환불해간 브로커3명의 신원을 밝혀내고 이중 李炯出씨(40·서울 九老區宮洞192의19)와李영진씨등 2명의 신병을 확보, 범행배후와 환전경위를 캐고있다. 검찰은 또 金鳳燮씨(31) 가 신병이 확보된 두사람의 상급선으로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것으로보고 뒤를 쫓고있다.

김찰은 이와함께 4개은행의 여행자수표담당및 창구직원등 10명과 해외이주대행업소인 서울鐘路區淸進洞225 南美이주공사직원 3·4명등 모두15·16명도 소환신문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李炯出씨는 朝興은행 半島지점에서 17명의 여권으로 여행자수표(TC)4만달러를 환전해갔으며 李영진씨도 외환은행 三一로지점과 서울신탁은행 본점에서 거액을환전해갔다는것。

◇신병이 확보된 환전 브로커 李炯出씨

李炯出씨는 K이주공사에 자신의 미국이민허가 수속을 맡겨 지난 79년6월18일자로 이주허가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출국하지않고 해외여행알선기관과 접촉을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李영진씨에게 여러차례 환전을해준 외환은행三一路지점 외환대리 曺旭鉉씨 (30)에 의하면 李씨는 평소 몇사람분의 환전서류를갖고와 환전해갔는데 서류에는 하자가 없어 의심없이 환전을 해줬다고 말했다.

한 은행직원에 의하면 李씨는 이번사건이 공개된 지난11일에도 환전을 해간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흥은행 半島지점 TC담당대리 金圭淑씨(34)와 행원 李모양등 3명을 상대로, 여행자수표발급경위를 추궁하고있는데 검찰은 은행직원들이 환전필 도장 또는 사인을 해야하는데 이를지우고 다시 사용하는것을 묵인하거나 환전필도장이 찍혀있는데도 재사용하는것을 묵인 또는 백지 TC를 발급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됐는지 여부를 집중추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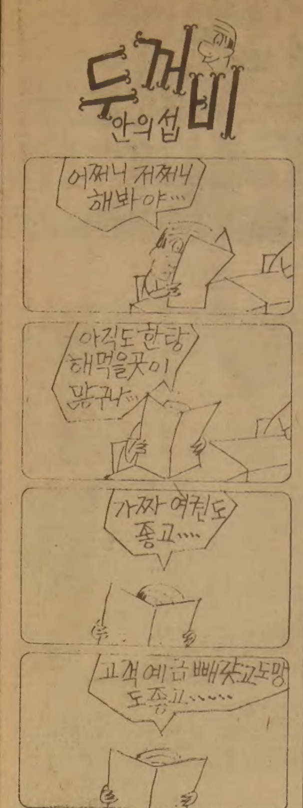
南美이주공사관계여직원등 3、4명은 환전 브로커들과 결탁, 이민희망자들의 여권을 빼내 도용, 또는 위조케 해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이 南美이주공사 직원도 개입돼있다고 보는것은지금 南美이주공사에 이주수속을 의뢰했던 金福姬씨 (28) 李順德씨 (35) 등 두사람이 브로커들이 환금하는 과정에서 도용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南美이주공사 전春川지사장 李相鶯씨 (44)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한편 여권담당직원 李모양 (22) 과 金모양 (24)등 2명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南美이주공사여권관계서류일부도 압수했다.

한편 鄭基萬씨 (26) 李順德씨 (35) 金福姬씨 (28) 등 3명은 이름을 도용당한것이 확인됐다. ★관련기사10면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社長을협박、갈취

퇴직 4명拘束 "脫稅폭로하겠다"金品뜯어

【大邱】대구시경은 15일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사장에게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한 B합판 전 전무 이봉영씨 (51·大邱市南區梨泉2洞285) 전상무 오철홍씨 (40·부산東萊區長箭1동203) 전 종업원 김상곤 (29·大邱市中區鐘路1街102) 전상무 박성호씨(48·大邱市壽城區中區洞500) 등 전직원 4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 회사 전부사장 윤석규 (49·서울九老區宮洞175) 전 서울M회사상무 윤상효씨 (47·大邱市南區鳳德洞) 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大邱市壽城區 B합판상사(대표 김광수·59)에 근무하다 지난해부터 금년2월사이 각각 퇴직한뒤 김사장에게 사업자금 3천만원을 주지않으면 거액의 세금포탈과 납세증명등 공문서를위조하여 부정대출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여러차례 협박, 지난2월부터 5월까지 김사장으로부터 합판제조기계 4대 (싯가 1천6백만원상당) 를 갈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大邱市 壽城區노변洞에 갈취한 합판제조기를설치, 선명합판이란 공장을 설립, 공동운영해 오다가 사장의 고발에 따라 경찰에 걸려됐다. 【聯合】

절도피의자 釋放미끼 千9백만원 詐取

40代에 구속令狀

【釜山】부산시경은 15일 具종금씨 (49·부산中區大橋洞1街69)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具씨는 지난80년2월 회사주식을 훔친 혐의로 구속중인 金鎔學씨 (43·대한여객상무)의 부인 黃修列씨 (40·부산南區大淵5洞1461) 에게 관계기관에 부탁, 남편을 무죄석방 시켜주겠다며 그동안 5차례에걸쳐 모두 1천9백만원을 받아낸혐의다. 【聯合】

지역사회淨化委 간부 방범대원을때려 重傷

【富川】지역사회정화협의회 사무국장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연행되자 기물을 부수고 방범대원을 때려 전치2주의 중상을 입혔다.

富川경찰서는 15일 富川市사회정화협의회 사무국장 김정권씨 (45·중앙구장대표富川市深谷2洞482의1)를 공무집행 방해및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金씨는 지난13일밤 8시20분께 富川市深谷1洞522 E살롱에서 술에취해 전에 사귀던 살롱 여주인 김모씨 (31) 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종업원 김원배군 (19)을 마구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것.

김씨는 또 深谷파출소에연행되자 조사를하던 김인순경 (27) 의 멱살을잡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등 계속 행패를 부리다 이파출소방범대원 강동길씨 (25) 의 얼굴등을 주먹으로 마구때려 전치2주의 중상을 입혔다. 【聯合】

5백만원 뇌물유혹 뿌리치고

永川 파출소장 密輸犯 쇠고랑

【永川】방범초소에서 차량을 불심검문하던 일선 파출소장이 부정외래품을 대량으로 운반하던 화물트럭을 적발, 5백만원의 뇌물유혹을 뿌리치고 범인을구속했다.

경북 永川경찰서 서문파출소 소장 손병일경사 (39) 는 지난12일밤 10시20분께 관내 방범초소를 순시하던중 永川市와 永川郡의 경계지점인오수방범초소에서 싯가 5천만원상당의 부정외래품을 실은 트럭을 적발, 당시 화물주인 박진호씨 (48·구속)와 운전사 박용수씨 (27) 등 두사람은 『浦項에서 갈치를 사가는 도중』이라고 꾸며댔으나 손경사는 浦項지방에서는 갈치가 잡히지 않는다는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포장된 사과궤짝을 풀어헤치는순간 전자계산기 녹음기등 각종 일제 전자제품 4백20여점이 쏟아져 나왔다는것.

손경사는 이들에게 파출소에가서 원만히 해결하자며 파출소까지 유인하는데 성공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박씨가 『당신만이 아는사실이니 5백만원을 받고 일을 끝내달라』며 뇌물공세를 폈으나 한마디로 거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손경사는 지난62년 大邱工高건축과를 졸업한후 전투경찰로 경찰에 투신, 그동안청소년보호운동의 공로로 국무총리표창등 각종표창만도 무려 16회나받은 모범경찰관이다. 【聯合】

南光토건 會長에 2차례 협박편지

서울 西大門경찰서는 15일 南光토건회장裵偵一씨 (63·서울龍山區梨昌洞5의606) 에게 두차례에걸쳐 협박편지를보내 현금2천만원을 받아내려던 呂永露씨 (26·경기坡州郡 金村面金村5里山7)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수인 崔國賢씨 (25·주거부정)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呂씨는 지난달 11일 裵회장 앞으로『27년전 당시 체불임금 32만5천환의 댓가로 현금2천만원을 소형 가방에 넣어 5월14일 하오6시10분 서울역발城北역행 교외선열차 마지막칸 출입문 입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일가족을 몰살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냈다.

呂씨는 첫번째 협박편지가 늦게 배달되는 바람에 실패하자 지난26일 다시『현금2천만원을 6월9일 하오5시 정각 南光토건지하다방으로 갖고오라』고 요구, 서울역앞에서 구두닦이를 하는崔씨를 시켜 돈가방을 가져오도록했다가 경찰이 잠복하고 있는것을 알고 달아났었다.

呂씨는 南光토건에서 2년간 잡부직으로 근무하다 지난3월12일 퇴직했는데 경찰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끝에 呂씨를 검거했다.

유엔 海洋法 協約 發效따른對策 협의

외무부는 15일 하오 법무·국방·동자부및 수산청·환경청·해운항만청등 관계부처의 海洋法관련 실무자 (과장급) 회의를 열고, 지난 4월30일 유엔 海洋法회의 11차회의에서 채택된 海洋法協約의 발효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遠洋漁業문제 深海底개발문제 海洋汚染문제등이 거론됐는데 동자부는 深海底자원 개발을위해 학계의 권위자들로 深海底개발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高神大 새學長 吳秉世씨

【釜山】고신대는 15일 상오11시 강당에서 吳秉世학장 (56)의 취임식을 가졌다.

제5대학장으로 취임한 오학장은 이대학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전임 李根三학장 (62) 은 미문화원 사건이후 사임했었다. 【聯合】

픽업 내리막길굴러 一家3명 重傷

15일상오8시10분께 서울 西大門區弘濟1洞449앞 내리막길에서 서울7가3218호 픽업(운전사 김용남·37)이 30m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金씨가 그자리서 숨지고 부인 장영임씨(34) 장남 정진군(9)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金씨가 픽업차에 가족을 태우고 시내로 달리다 운전미숙으로 커브진 내리막길에 굴러 떨어져 일어났다.

밀린賃金 받으러갔다 20代처녀 怪漢에피살

14일하오 7시10분께 서울 中區忠武路1街22의2 사보이호텔옆 확금종빌딩 4층화장실앞에서 이건물5층 洪의상실(주인 홍석근·여·41)전 종업원 朴淑眞양(사진·26·서울 東大門區 新內洞493의31)이 괴한에게 가슴과 배등3군데를 칼에찔려숨졌다.

朴양은 이날 봉제공으로일하다 지난달20일 그만둔 洪의상실로 밀린 임금 37만원을받으러 왔다가 받지도못하고 돌아가다 변을당했다.

경찰은 지난2월부터 朴양이 근무하던 의상실 부근의모 가게종업원(18세)이 朴양을 누나라부르며 가끔의상실 부근에서 朴양을만났고 지난3월에는 양수선전용 재떨이를 朴양에게 선물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치정에의한 범행이 아닌가보고 이종업원의 행방을 찾고있다.

人材銀行 개설 能率協, 7월1일에

고급중견인력을 기업의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줄 人材銀行이 오는7월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한국능률협회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는 人材銀行은 기업의 고급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0~50대의 전문직 종사자들에 재취업을 알선해주는데 주요목적을 두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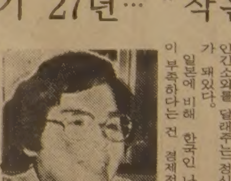
이에따라 人材銀行이 설립되면 기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직 경험이 있는 중견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수 있고 재취업 희망자들은 그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수 있는 직장을 쉽게 구할수 있게 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861

어느 日本人 간호원

聖나자로마을의 나까무라女史

異國 나환자 돌보기 27년… "작은 巨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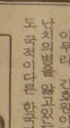


日本人간호원 나까무라·가즈꼬씨 (中村和子·57·사진)의 나이보다 앳되어보이는 얼굴엔 27년간 환자에게 베풀어온 박애의 인간미가 순간순간 비친다.

京畿도 始興에위치한 성나자로마을。이름이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일반인들이 꺼리는 나환자촌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19년동안 한국나환자의 생채기를 어루만지며 살아왔다.

아무리 간호원이라고는 하지만 난치의병을 앓고있는 환자를, 그것도 국적이다른 한국까지 찾아와 봉사하는 그녀의 내면세계를 보통사람들은 좀처럼 읽기가 어렵다. 인종을 초월한 인간애라는 말로서는 설명이 충분하달수가 없다.

『나병도 인류를 괴롭히는 많은 질병중 하나인데 왜들 특별히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자신이 나환자를 돌보게된 배경설명을 하지만 그녀라고 인간본연의 好·不好의 감정이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질문이 꼬리를문다. 그녀는다른사람들이 외면하는 분야에서 일생을 건다는 생각을 해온사람이었다. 한국에 나자로마을이있다는 소식은 우연히 알게됐고 현해탄건너 곳그에가서 봉사하는것이 자신의인생관을 실현시키는길로느껴 한국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안 그녀는 한국의 나환자를 지원하는 일본내 사사까와 (笹川) 재단의 주선을 받아 지난76년 이마을에 올수있었다.



그녀는 기숙사에 살며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 환자들의 상처를 정성껏 보살핀다。물론 월급을 받고하는 일도아니다。이제 나환자촌사람들에게 나까무라 간호원은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소외를 달래주는「정신적지주」가 돼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인 나환자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경제적여건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국가나 국민의 따뜻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그녀에겐 이해할수없는 아쉬움인것 같다.

거리를 방황하는 나병환자들을 늘 목격해야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오늘의 형편은 많이 낫아졌다. 그러나 나병치료가 선교사나 자원봉사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본는 것은 나까무라간호원만 갖는 슬픔이 아닐것이다.

그녀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한국말을 완전히 터득하여 환자들의 멍들고 찢긴 마음을 풀어주고 기워주는 일을 하는 것.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몇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그녀가 차차 커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집이 작아 보였으나 「巨人」이었다. 【조재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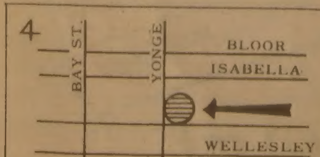
江戶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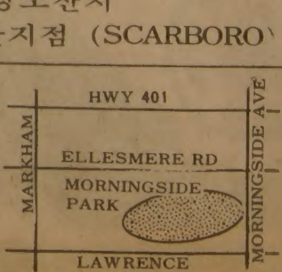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동우야유회 및 경로잔치

〈겸 임시총회〉

싱그러운 여름을 맞아 바쁜일손을 잠깐멈추고 동우 전가족이 푸른초원에 모여 부모님께 위로와 자녀들에게 심신의 단련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6월26일(토) (우천시는 7월3일〈토〉)
　1부, 10시~12시 〈임시총회〉
　　안건 : 회칙개정및 기타
　2부, 12시~5시 야유회및 경로잔치
1. 장소 : MORNINGSIDE PARK안 중간지점 (SCARBORO)
※중식및 바베큐용구는 각자지참
　(단, 음료·불고기·통돼지는 본회에서 준비함)



동우회

무료로 기꼬망 간장을 받습니다.

기 간 : 6월18일부터 27일까지
내 용 : 일본식품 소면 1다즌을 사면 당신의 가장 가까운 상점 (온타리오및 퀘벡만 해당)에서 기꼬망 간장 1병을 무료로 가질 수 있읍니다.
만약 소면 ½다즌을 사면, 간장을 55¢… 즉 1불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읍니다.

★이것은 품목이 다 매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의 가까운 단골상점에게 물어 보십시오.

기 꼬 망

個人技가 組織力 꺾었다
브라질、蘇에 逆轉勝

롱슛被襲…삼바應援도 침묵
2分前 에데르 劇的결승골

前半 後半

월드컵축구 제2일

브라질 턱수염主將 소크라테스 同點골 實力과시
이탈리아·폴란드 激烈한 태클戰… 0대0 비겨

【마드리드14日=聯合】 월드컵 4연패에 도전하고 있는 브라질은 15일 새벽(한국시간) 세빌리아에서 벌어진 제12회월드컵축구대회이틀째 예선 6조 첫경기서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蘇聯에게 2-1로 역전승, 1승을 올렸다. 이날 비고에서 벌어진 예선1조 경기에서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0-0으로 비겼다.

개막경기에서 강호 아르헨티나가 벨기에에게 쓰러진것처럼 브라질도 하마터면 蘇聯에 패할뻔 했다. 브라질은 蘇聯 전반33분 안드레이·발의 기습적인 30m 롱슛을 막지못해 선제골을 허용, 0-1로 열세에 몰리다가 후반 29분 주장인 소크라테스가 동점골, 경기종료 2분전에 에데르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려 어렵게 게임을 역전시켰다.

삼바리듬에 맞추고 북을두드리며 열광하던 브라질응원단은 전반33분 GK 왈디르가 어처구니없이 롱슛으로 1골을 잃자 한순간 침묵에 빠졌다. 브라질은 개인기와 볼 컨트롤에서는 蘇聯을 능가했으나 강한조직력의 蘇聯 수비가 강했다. 특히 GK 리나트·다사예브는 여러차례 실점위기를 막았다. 골게터인 올레그·블로킨은 전반초 결정적인 헤딩슛을 때렸다.

후반29분 브라질의 동점골은 턱수염을 기른 소크라테스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상대진영왼쪽에서 볼을 받아 수비2명을 제치고 25m지점서 강슛을 성공시킨것.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격렬한 태클을 주고받으며 총력전을 벌였으나 끝내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16일 경기 (한국시간)

▲1조 페 루—카 메 룬 (상오 0시15분)
▲3조 헝 가 리—엘살바도르 (상오 4시)
▲6조 스코틀랜드—뉴질랜드 (상오 4시)

프랑스의 미셸·보트로주심은 경기시작 10분께 이탈리아의 지암페로와 폴란드의 즈비그뉴·보니에크에 경고를주었다.

초반의 공방전에서 먼저찬스를 잡은것은 폴란드. 폴란드는 보니에크와 라토가 스타플레이어인 미드필드를 장악하고 이탈리아의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5분, 보니에크의 프리킥이 이탈리아 수비진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탈리아는 15분께 첫찬스를 잡았다. 그라지아니가 폴란드골문 앞에서 슛하려 했으나 각도가없어 불발로 끝났다.

이탈리아는 경기종료 10분전 타델리가 날린 멋진 슛이 골포스트에 맞고나오는 불운을 당했다.

◇제2일전적
▲6조(세빌리아)
브라질 2(0-1 2-0)1 소 련
(1승) (1패)
▲1조
이탈리아 0(0-0 0-0)0 폴란드
(1무) (1무)

◇폴란드의 보니에크㊨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카브리니의 태클을 뚫고있다. 양팀은 득점없이 비겼다. 【비고(스페인) 14일AP聯合=聯合】

브라질、蘇에 먼저失點…또하나 異變

蘇에진 惡夢되살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브라질은 전반33분 소련 HB 안드레이·발의 롱슛으로 선제골을 허용, 이번대회 최대의 이변을 낳는듯 했다.

브라질은 2년전 리오데자네이로의 홈그라운드에서 소련에 2-1로 패한 악몽이

있다.

소련은 12년만에 본선에진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2년空白만회 自信

◆…폴란드의 뛰어난 공격수인 보니에크는 『이탈리아가 우리팀을 몹시 괴롭히기는 했지만 경기결과에는 불만이없다』고.

그러나 78년도대회때 이탈리아의 최우수선수였다가 도박스캔들로인해 최근 2년간 출전금지를당했던 파울로 롯시는 『이탈리아가 이겼어야 할 경기』라고 불평.

그는 『2년만에 국제경기에 참가하게되어 감개무량하다. 종전의 실력을 되찾자면 시간이걸리겠지만 다시 옛날과같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

負傷키건 出戰걱정

◆…잉글랜드팀의 주력 스트라이커이며 두번이나 유럽최우수선수상을 차지했던 케빈·키건이 부상으로 16일 빌바오서열리는 예선4조 첫경기(對프랑스)에 출전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나돌고있다. 론·그린우드감독도 키건이 오래전부터 등을 다쳐 고생하고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벨기에新聞 "歷史的골" 1面 머리기사로

蹴球史 영원한快擧

◆…첫날 벨기에가 예상을 뒤엎고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격파하자 벨기에 신문들은 『반덴베르그의 역사적인 골』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면머리를 장식하는등 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각종 매스컴은 벨기에가 아르헨티나를 꺾은 것은 축구사에 영원히 남을 쾌거라고 보도.

【이상桂·聯合=聯合】

디노·조프40歲고령

◆…스페인 월드컵출전 24개팀 선수중 가장나이가많은 이탈리아의 노장GK 디노·조프(40)는 14일 폴란드와의 경기서 국제경기출전1백회를 기록, 무실점으로 선방했다.

伊·波戰너무나緊張

◆…폴란드의 앤터니·피에츠니체크감독은 이탈리아와의경기가끝난후 『양팀이너무 긴장해 충분히 제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피력.

그는 『이번1차전은 양팀에게 매우중요한 경기였다』며 폴란드가 2회전에 올라가는데는 아무영향이 없을것이므로 경기결과에는 만족한다고말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엔조·베어르조트감독은 『폴란드는 아주 성실한팀이며 보니에크가 특히 멋진경기를 보였다』고 칭찬하고 『조금만 운이 따랐더라면 승리할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아르헨팀表情 침울

◆…아르헨티나는 개막첫경기에서 벨기에에 패한뒤 완전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풀죽은 모습으로 13일밤 바르셀로나의 누·캄프경기장을 빠져나간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14일에도 온종일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헝가리및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이겨야만 2차리그 진출을 기대할수있다.

잉글랜드 평균28세

◆…스페인월드컵본선에 진출한 24개팀가운데 선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팀은 잉글랜드로 평균28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2년만에 본선에 오른 蘇聯이 25세로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24개 본선진출팀 전체의 선수평균연령은 26.5세.

宿所서 生日파티도

◆…24개팀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13일밤 발렌시아에 도착한 北아일랜드팀은 도착즉시 숙소에서 골키퍼 패트·제닝스(37)의 생일파티를 열었다. 빌리·빙검 매니저는 『제

한국代表냐 할렐루야냐
대통령盃축구, 오늘4强戰
"명예회복" "上昇勢지켜"

앞서 和蘭-브라질 對戰

제12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4강전2게임이 16일하오5시부터 서울운동장서 펼쳐진다.

◇金正男 코치

◇咸興哲 감독

국내 팬들의관심은 PSV아인트호벤(네덜란드)-오페라리오(브라질)대전에 이어서 열리는 한국대표-할렐루야의 한판승부에 집중되고있다.

한국대표는 이번대회 예선전을 무난히돌파했지만 경기내용이 부실, 큰충격을 일으켰었다.

이같은 부진을 말끔히씻고 다시 대표팀의 명예를 회복할수있는 기회가 할렐루야와의 준결승전이다.

金正男코치는 『선수들 모두가 3連勝를 하겠다는 정신무장이 되어있고 기량도 할렐루야보다는 우수할뿐만 아니라 컨디션도 좋아지고있어 승리할수있다』고 했다.

그러나 할렐루야도 이번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예선전서 상승무드를 탄 할렐루야는 팀웍이 잘 다져져 이번에는 대표팀을 꺾을수있다고 咸興哲감독은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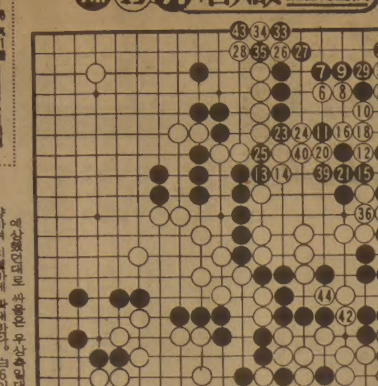
지난4월 한국대표와 할렐루야의 평가전서는 한국대표가 2-1로 이겼었다.

PSV아인트호벤과 오페라리오의 대전서는 아인트호벤의 승리가 예상되나 유럽과 남미의 각기 다른 스타일로 맞설것으로 보인다.

제13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1局 第11譜 (1~144)

白(挑戰者) 徐奉洙
黑(名人) 曺薰鉉
(각5시간·덤5집반)



예상했던대로 싸움은 우상쪽일대를 향하여 치열하게 확대한다. 白6이하의 교란작전에서 걸나는일이 없어질것 같았는데 黑11이 다급한 임기응변이었다. 이수로 22자리에 내려서면 白11로서 만만치가 않다.

一瞬에 異變發生

그렇더라도 이어진변괴인가. 섣부르게 白44까지의 결과부터 따지면 白의 대실패. 黑은 상변과 중앙의 白을 잡고 관통했을뿐아니라 우변에서도 白을 가르며 아래쪽에 건너간 반면 白은 우하귀 黑6점을 잡은데에 불과했다.

참고도 白은 절망상태다. 白12는 참고도처럼 白2이하로 黑을 잡고 미개척지에 선수없으니 선수를 잡고 미개척지에 선행할수있었다.

실전은 黑15를 유발하여 白16으로 돌이여했고 24자리를 비킨 白22때문에 黑23·25의 예리한수를 당했다. 그리고 마지못하여 패를 만들었지만 버릴도리가 없었다. 38, 41…패.

【一凡】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위급전화
911

주간女性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 (416)533-2361

보내실 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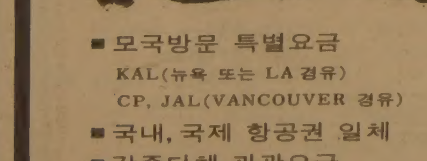
히팅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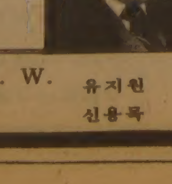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HOUSING CONSULTANTS LTD
1177 FINCH AVE. W. SUITE 21
☎ : 663-5155(B)
535-2804(R) 김 상 표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5,000는
당신 주택구입에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집세를 내고사는 사람이라면, 주택주가 되는데 용기를 주는것이 여기 있읍니다.〉

지금부터 1982년 10월30일까지 온타리오렌터·바이(Renter-Buy) 프로그램은 지난12달 렌트를 해 왔거나, 과거 자신의 주택을 가진적이 없는 사람은 15년간 5,000불까지 이자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읍니다.
이 대부금은 단지 새집에 한해서 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다음과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집 구입가격의 최저 10%이상 다운페이해야 합니다. 렌터·바이(Renter-Buy) 대부금은 5,000까지 10%더 빌릴수 있읍니다. 대부금을 추가해서 다운페이하는데 이용할수도 있읍니다. 15번째 년 이자대부금은 처음 10년간은 무료이고, 11번째년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구입가격〉

구입가격은 메트로·토론토나 그 주위지역에서 $115,00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온타리오주 아무곳에서나 구입가공가격은 $90,000까지 입니다. 최저가격은 $20,000이상이어야 합니다.

〈제한된 주택〉

어떤 주택이나 단위 거주지는 과거 거주목적으로서 사용되지 않은 한, 영구적이므로 일년내내 사는데 적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콘도미늄,모빌·홈, 자신이 지은 단위거주(Unit)를 말합니다. 재매매시장에 나와있는 주택은 적용이 안됩니다.

〈자격있는 사람〉

개인이나 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나 부부도 단지 신청을 한번밖에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배우자가 지난12달동안 신청기간에 앞서 거주지를 가졌다면 (빈 땅이나, 계절적으로 비어있는 별장은 제외) 당신은 자격이 안됩니다. 회사·트로스트회사·파트너쉽등등은 역시 해당이 안됩니다.

〈구입을 할때〉

이 프로그램은 1982년5월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1982년 10월30일까지 계속합니다.
이 거주단위(Unit)는 1983년4월30일전에 원거주자가 들어와 살아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편지 또는 전화로〉

우리는 온타리오렌터(Renter)구입 프로그램의 중요한 사항을 알렸읍니다. 더이상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면, Ontario Mortgage Corporation, 60 Bloor St, W, 11th floor, Toronto, ON T.M4W 3B8로 편지하십시요.
전화 : 토론토지역 963-1560
토론토외곽지대
1-800-268-1158(장거리)
주민을 돕고 일하는—온타리오정부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Ontario
Claude Bennett,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challenge 2000
To meet Ontario's housing needs of today and tomorrow.

2-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3黨대표 내일靑瓦臺서 회담

全대통령招致 國政전반 意見교환

民心수습·景氣부양책 力點 民正
難局타개 政治活性化 주장 野圈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형식으로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대표들이 참석하는 청와대회담이 16일 열린다. 黃善必청와대 대변인은 14일상오 『全대통령은 오는 16일낮 李載濚民正黨대표위원, 柳致松民韓黨총재, 金鍾哲국민당총재등 3黨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國政전반에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黃대변인은 구체적인 회담議題와 발표형식문제에 관해 『회담의 議題,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陪席者와 발표형식문제도 좀더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회담일자와 각 黨대표의 초청은 黃대변인의 발표직전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을 통해 각 黨에 통보됐다.

引責문제 意見접근 이뤄질 可能性

이번 청와대회담에서는 그동안 民正黨측에서 李·張부부사건으로 틀어진 民心수습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해왔고 野圈에서는 難局수습을 위한 정치활성화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시국전반에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民正黨과 民韓·국민당등 野圈은 이 회담에서 다룰議題에관해 엇갈린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民正黨은 이번청와대회담은 巨額어음사기사건에 따른 民心수습을 위한 모임인 만큼 사건마무리를 위해 景氣浮揚策, 私債시장의 부조리 根絶, 물가안정, 中小企業육성등 과감한 경제조치마련에 力點을 두어야한다는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반해 民韓黨은 李·張사건처리에 따른 경제조치와 총리및 관계장관引責이외에도 政局안정과 民心수습을위해 정치와 언론의 活性化, 선거법개정, 정치규제자解禁, 지방자치제실시등 정치議案을 다룰것을 계획하고있고, 국민당도 정치적 수습안으로 경기회복등을 추진할 방침으로있다.

그런데 政界에서는 이번청와대회담이 李·張부부사건으로 빚어진 難局을수습하는 공적인 계기가돼야 한다는데는 與野가 인식을 같이 하고있어 全대통령이 李·張부부사건이 어느정도 수습되는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국무위원의 引責문제등에는 의견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하고있다.

全대통령이 政界원로및 정당대표들을 靑瓦臺로 초치, 시국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全대통령은 81년2월20일訪美후 尹潽善, 崔圭夏前대통령과 民正의 李대표위원, 民韓의 柳총재, 국민당의 金총재, 民權의 金義澤총재, 民社(당시)의 高貞勳당수등을 청와대로 초치, 訪美성과와 국민화합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아세안巡訪후인 같은해 6월19일에는 民正, 民韓, 국민, 新政, 民權, 民社등 6黨대표들을 초치, 시국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3黨대표회담은 참석자가 3黨의 대표로 제한돼있고 李·張부부사건으로 흩어진 民心수습과 難局타개를 위해 政黨에서 주선해 이뤄지게 됐다는점에서 과거 청와대모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全斗煥 대통령이 國政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초치, 오찬을 갖기에앞서 崔圭夏前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인사하고있다. 崔前대통령 뒤쪽은 許政자문위원.

國政 諮問위원 全대통령 招致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낮 崔圭夏의장을 비롯한 國政諮問위원20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國政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國政자문위원들은 이에 앞서 서울三淸洞회의실에서 제14차회의를 갖고 朴鍾洙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農政의현황과 추진방향, 鄭致根법무장관으로부터 어음詐欺사건에 관해 각각 보고를받았다.

"世界平和 사랑하는 모든自由民에 손실"

全대통령, 사우디國王 逝去에 吊電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하오 할리드·이븐·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國王의 逝去에 즈음한 담화를 발표, 『할리드국왕의 서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원한 友邦인 한국의 온국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이 아닐수 없다』고 밝히고 『본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故人의 偉業과 유지를 받들어 더욱발전, 번영함과 아울러 인류의 共榮에도 계속기여하게 될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담화에서 『할리드국왕은 中東의 평화와 번영을위해 빛나는업적을 쌓았으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하고 『본인은 우리 온국민의 이름으로 파하드新국왕을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국민에게 깊은애도의 뜻을표하며 우리의 무궁한 友誼를 전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새로 即位한 파하드·이븐·압둘·아지즈국왕에게 祝電을 보내 『양국간의 우호적인 유대가 상호유익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증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統一문제討論會 국내외學者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하

전국에 뇌염注意報

예년보다 12일빨라 釜山등 日本뇌염모기 발견

보사부는 최근 부산·光州·全北 完州등지에서 예년보다 12일 빠르게 첫 뇌염모기를 발견, 14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내리는한편 각시도에 뇌염방역대책을 시달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1일부터 부산·충남大德·전북完州·光州·麗州·濟州등6개지역에대해 유문등을설치,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사업을 실시한결과 일본뇌염 매개모기(큘렉스모기)가 채집되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방역대책으로 뇌염환자의 발생보고를 접수한 관할보건소장은 즉시 현장에 출동, 뇌염증세가있는 사람은 병·의원에 입원치료를하도록하고 보사부에 즉시보고토록 지시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뇌염에 감염되면 치사율이높고 치유가 된다해도 뇌에손상을 일으켜 심신장애를 일으키는 후유증을 남긴다고 주의를환기시키고 국민들에게 모기를 잡거나 물리지않도록하며 모기향을 피우거나 야간옥외활동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또 발병가능성이 높은연령층인 3~1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조기에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아울러 당부했다.

일본뇌염모기는 학명으로 작은 빨간집모기(큘렉스)로 보통6월중에 첫발생하며 1~2개월내에 그발생수가 최고에달하며 평균수명은 1~2개월이다.

지난해 일본뇌염 첫주의보는 6월26일에내려졌으며 뇌염환자는 모두 1백94명이발생, 그중 9명이 사망했다.

黨員 道德性재무장

李民正대표, 교육개강식서 연설

李載濚 民正黨 대표위원은 14일『民正黨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깨끗하다는것이 입증되었으나 한정권은 도덕성만으로는 충족되지않는 것인 만큼 국민앞에 [illegible] 성적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표는 이날 黨중앙정치연수원에서 있은 활동장반교육개강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民正黨은 비록 도덕성은견고하나 정치능력이 미흡했다는것이 입증된이상 도덕성을재무장하고 국민앞에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民正黨이 창당초에는 하늘의 축복이 있는줄 알았는데 금년들어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나 제5공화국이 가는길에 어려움이 닥쳐 왔다』면서 『의욕과 자신을 갖고 후회없이 걸어갈수 있는 결과가나오도록교육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

레이건·베긴 21일會談

하비브, 시리아向發 팔據點 전투中止 촉구

【예루살렘14日外信=聯合】中東사태와 관련, 왕복외교를 펴고있는 필립·하비브 美중동특사는 레바논戰의 종식을위한 이스라엘측 제안을 휴대, 14일중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갈것으로 믿는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14일 말했다.

지난11일 시리아수도 다마스커스로부터 이스라엘에도착, 이스라엘軍과 팔레스타인게릴라가 휴전약속에도 불구하고 베이루트주변 양측진지에 서로 포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과 회담을가진 하비브특사는 이스라엘측에 베이루트의 팔레스타인게릴라거점에 반격을 가하지말도록 촉구했었다.

그러나 베긴수상은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12일의 휴전약속을 계속 위반하고 이스라엘군에 공격을 가한데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이 전했다.

또 모세·레비 이스라엘軍참모차장은 13일밤 이스라엘라디오방송을 통해 이스라엘軍은 『가능한 포격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격이 불가피했다』면서 그러나 시리아군은 휴전약속을 준수하고있다고 말했다.

"베이루트 完全포위"

이軍사령관, 空港장악…占領은 안해

【텔아비브14日外信=聯合】라파엘·에이탄 이스라엘군사령관은 14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완전포위했으며 베이루트공항도 장악했다고 말했다.

에이탄장군은 그러나 베이루트에대한 점령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관리들은 하비브특사에게 이스라엘측 국경으로부터 40km이내의 지역을 非게릴라완충지대로 만들어 국제평화유지군의 감시하에 두자는 이스라엘측의 요망사항이 전달됐다고말했다.

이어 이관리들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개입은 지지하지만 유엔군파견은 원치않는다면서 그이유는 소련군도 그에 포함될수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베긴수상은 오는21일 백악관에서 레이건 대통령과 이스라엘측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리들은 그가 18일의 유엔연설을위해 15일 출국할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번 레바논전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 부가가치세를 종전12%에서 15%로 올리고 관광여행자들에게 1人當 6백세켈(약3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유가증권매매세를 2% 인상했다.

東베이루트 訪問 「샤론」이國防相

【텔아비브14日AP=聯合】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은 13일 베이루트의 기독교도거주지역을 방문했다고 이스라엘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샤론국방상이 이곳에서 일부주민들과 만났으며 레바논수도 베이루트를포위하고있는 이스라엘군의 군사시설들을 시찰했다고 말했다.

동베이루트에있는 기독교도지구는 지난수일간 베이루트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면했었다.

◇12일 뉴욕의 유엔본부건물에서 대규모反核시위장소인 센트럴공원으로 가기위해 42번가를 지나가고 있다. 【뉴욕12日AP=聯合】

뉴욕서 百萬참가 美,최대反核데모

核武器동결·軍縮등 요구

【뉴욕13日外信=聯合】1백만명의 시위 군중이 12일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집결,核무기에 반대하는 美사상 최대규모의 反核데모를 벌였다.

버스와 열차편으로 미국전역에서 몰려든 시위자들은核무기의 동결과 군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유엔군축 특별총회가 열리고있는 유엔본부앞을 지나 센트럴·파크에 모여 약5시간동안 반핵 군중대회를 가졌다.

이날의 반핵대회는 유명배우와 가수를 비롯, 흑인민권지도자 마틴·루터·킹의 미망인및 일본의 원폭피해자등 수십명이 연사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찰당국은 이번 시위와 관련체포된 사람이 한명도 없으며 다만 부상자가몇명 발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할리드」 사우디國王 急逝

새國王 파하드皇太子임명

새皇太子엔 압둘라

◇할리드 前國王

◇파하드 새國王

【리야드13日AP·UPI=聯合】할리드·이븐·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국왕이 13일상오 타에프의 夏季왕실에서 심장마비로 급서했다. 향년69세.

할리드국왕의 유해는 급서후 즉각 리야드로 운구돼 7시간도 채못된 이날 하오 리야드 중심지의 알·우드묘지에 안장됐다.

사우디왕실 원로위원회는 할리드국왕의 이복동생이자 제1부수상인 파하드황태자를 새국왕으로, 제2부수상겸 국가경비사령관 압둘라왕자(58)를 제1부수상겸 새황태자로 각각 임명했다. 또 제2부수상에는 국방상 술탄·이븐·압둘·아지즈왕자를 임명했는데 압둘라 새황태자는 막강한 권력의 국가경비사령관을 겸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왕실원로위원회는 할리드국왕의 서거를 공식발표하기전 회의를 갖고 파하드 새국왕에 대한 충성을맹세했으며 파하드 새국왕은 할리드국왕의 『소망과 계획』을 계속 추구하겠다고다짐했다.

혁인 파이잘국왕이 암살된 뒤 지난75년3월25일 사우디 국왕이된 할리드국왕은 70년에 한차례 심장마비를 일으켜 72년과 78년 美오하이오州 클리블랜드에서 심장절개수술을 받았었다.

할리드국왕은 근년에 들어 심장병이 악화, 제1부수상인 파하드황태자에게 국가의 일상업무를 관장토록 해왔다.

왕의 유해는 일단 알·리야드大寺院에 안치됐다가 회교율법에 따른 간소한 의식을 거친뒤 사우디왕실 소유지역의 알·우드묘지의 중앙에 안장됐다.

3~40일씩 哀悼기간 아랍圈, 弔旗게양도

【매나마(바레인)13日=聯合】아랍권은 13일 할리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서거를 충격속에 접하고 고인에 대한 조의표명과 함께 파하드 새 사우디 왕을 정점으로한 새 사우디 왕의 무궁한발전을기원했다.

사우디에 인접한 페르시아灣국가들을 비롯한 아랍권전역은 할리드국왕의 서거소식이 전해진 이날 12시(한국시간하오6시)를 기해 각국별로 3일에서 40일까지의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각국 원수급의 조문사절단 파견과 조기를 게양했다.

地平線

사우디 아라비아라면 무엇보다도 세계기름 매장량의 4분의1을 깔고 앉아있는 나라라고 꼽아야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의하면 인구는 8백70만쯤. 개인소득은 미국보다 약간 높거나 맞먹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로서는 기름의 60%를 사오는 기름창고요, 건설수출시장이다. 그러나 기름의 60%를 댄다는 것만으로는 잴 수 없는 비중을 가진 나라다.

▼20세기초 「와하브운동」이라는 회교정통주의운동으로 나라를세운 사우디아라비아는 가장 보수적인 회교국가의 하나다. 코란은 바로 헌법이요, 아랍말로 「울레마」라 불리는 승려는 왕실의 존경을 받고있다. 『무타윈』이라는 종교경찰관은 매를 들고 시민을 단속한다. 내무성과도 관련을 갖는 종교경찰은 최근 인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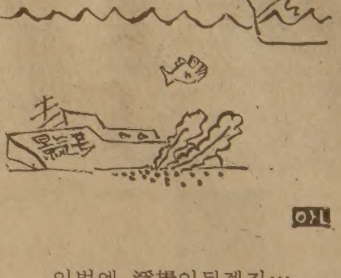
▼그런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친서방·보수적인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호메이니옹의 이란과 싸우는 이라크에대해 약1백억달러나되는 엄청난 돈을 대주었다. 이라크가 이기건 지건 이돈은 도로 받아내기 어려운돈이다. 이스라엘과 소련을 똑같은적으로 보고있는 사우디는 미국과 합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합동군사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군수품 구매를위해서 만든것으로돼있다. 또한 이지역의 보수군주국가들을 묶어서 GCC라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걸프지역 협동위원회」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통합對空방위망을 구축할 작정이다. 85년에 미국에서 사들여올 공중조기경보기(AWACS)가 통합방위망의 중심이 될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70년대의 기름값활황기에 엄청난 돈을 모아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했다. 한 보도로는 81년에 해외에 있는 투자에서 굴러들어온 수입만도 1백억달러가 넘었을 것이라고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정책, 다시 말해서 기름정책은 서방측경제와 뗄래야뗄수없는 입장이 됐다는 평가도있다. 기름값이 지나치게 올라 불경기가 되면 그자신이 손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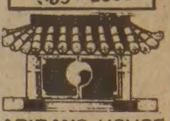
▼파하드왕은 황태자시절인 지난3월 정치개혁을 위한 공약을 한일이 있었다. 마질리스·아슈라라는 국정협의기구를 만들고,국가운영의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한다는 등이다. 할리드왕의 서거후 파하드왕이 등극함으로써 개혁안이 어떻게될지 모르지만, 서방측과 사실상의 동맹관계가 더욱 굳어지리라는 낙관적 전망을 21세기까지 끌고갈수 있기를 희망한다.

社會漫評



이번엔 浮揚이되겠지…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Central Connecticut State College

SUMMER SCHOOL

•"동양및 한국학 강좌" 안내•

코네티커트주 「뉴 브리튼」시에 133년의 역사를 지닌 본교는 이번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아시아및 한국학강좌를 열기로 했읍니다.

강좌내용이 한국학생들에겐 친숙한 것들이어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공부와 영어강의를 듣는 훈련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여기서 취득한 학점은 미국내 어느대학에서도 인정받을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반학생들도 이 강좌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이용할 수 있읍니다.

○A.S.497 : 동아시아 연구(중국·일본), 3학점
6월28~7월30일(월~금, 09 : 50~11 : 30)
○A.S.498 : 한국학 연구, 3학점
6월28일~7월30일(월~금, 08 : 00~09 : 40)
◆등록비 : 6학점에 365불 ◆기숙사비 및 식비 330불
◆강사 : 고광림 · 유재신 · K.H.KIM · J.B.AXENROTH · R.A.WILLIAMS

연락처 : 1615 STANLEY ST. NEW HAVEN, CONN. 06050 ☎(203)827-7465 고광림박사

DOMINION SMALLWA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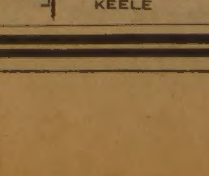
Cash & Carry 에 한함

June 14 - June 26

		SPECIAL
Allen's Fruit Slice Pop	48x10¢	$ 3.16
Leaf Ball Gum Prepack	9x48x10	26.64
Leaf Ball Gum Bubble King Prepack	6x48x10	16.65
Leaf Ball Gum Prepack	8x24x25	29.33
Jumbo Sticks	120x.5	3.95
Lola 250ml	24x33	4.75
Double Bubble Soft Gum	20x30	3.39
Double Bubble Gum	480x.2	5.89
Y & S Twizzlers	60x10	2.65
Yorkie Chocolate Bar	40x49	11.49
Tic Tac Display	90x35	19.99

약간명의 세일즈 맨을 모집합니다.
(가게를 경영해 보신 분은 더욱 환영함)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親西方 온건노선 견지

——파하드新王의 사우디

할리드국왕의 급서로 石油王國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를 계승한 파하드·이븐·압둘·아지즈새국왕(60)은 할리드先王의 이복동생으로 할리드왕이 심장질환으로 국정에서 손을 뗀 75년이후 사실상 사우디를 이끌어 왔던 제1의 실권자이다. 사우디왕조창건자인 故압델·아지즈국왕의 36명의 아들중 한사람인 파하드국왕은 건장한 체구에 정력과 박력이 넘치지만 자제력 또한 겸비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75년 제1부수상에 오르기전까지 그는 문교·석유·내무등 화려한 행정경험을 쌓아오면서 사우디를 근대화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해왔다.

아랍圈중심세력 不動

75년부터 國王수습… 權力기반 다져

石油정책도 安定추구

55년 미국유학을 마치고돌아온 파하드는 문교부를 창설, 여성의 취학을 허용하는가하면 많은 사우디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시켜 이들을 근대화의 기간요원으로활용했다.

62~75년에는 내무상으로서 행정재조직을추진했고 64년에는 파이잘왕옹립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곧 제2부수상에 오르는 출세가도를 달렸다.

파하드는 이외에도석유상 고등교육상,국방상등도 두루 역임했고 74년에는 미국과 경제·군사협력협정을 체결, 美·사우디협력체제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75이후 황태자겸 제1부수상으로서 石油와 外交를 연결하는 노력을 경주하며 미국·서독·이집트·시리아·이란·이라크·요르단·영국 프랑스등 전세계를 자주 돌며 사우디를 아랍권강자로부상시켰다. 그러니까 그는 내정과 外交양면에서 충분한국왕修習기간을 보냈다고 볼수 있다.

파하드국왕이 이끄는 사우디왕국의 石油·對外·對內정책에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친미·친서방노선을 더욱 공고히해 아랍권에서 사우디의 이니셔티브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심이 되고있는 석유정책은 왕가의 권력구조가 정착될때까지 장기적 OPEC전략 노력을 중단할 우려가 있으나 파하드 새국왕이 밀고온 세계경제와 유가 안정 사이에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노선으로보아 격변은 없을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있는 유가의 재편성 작업은 장기적으로 서서히 추진할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85억달러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데 주역을담당한 파하드국왕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을 강력히 비난하고 북아프리카·아랍권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친미·친서방노선에 선명하게 부응하고있다.

파하드는 '캠프데이비드협정을 비난했지만 故안와르·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노선을 지지하기도했다. 또 아라파트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계속 지지해오면서도 이집트의 무기구매에 재정지원을하는 독특한 외교성을 발휘했다.

그의 친서방태도때문에 사우디왕실과 다른 아랍강경국으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아왔지만 강경국에는 유화적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등 온건국과는 페르시아만협력협의회(GCC)를 결성해 서방파 손잡고 소련을 견제하는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때론 회교종주국의 전통적입장을 고수, 보수주의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아랍국을 통솔하는 기반을 닦기도 했다.

작년 파하드는 ▲이스라엘의 점령지 무조건 철수 ▲모든 적대국가의 상호승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창설등 8개항중동평화안을 내놓는등 아랍권의입장을 미국·서방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가하는 흥통한 외교역량을과 시했다. 이 평화안은 아랍강경국의 반대로좌초됐으나 항구적인 중동평화의 근간이될 것으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레바논사태에서 레이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극적인 휴전에 이르게한 수훈을 세웠다. 이같은 그의수완과 영향력은 할리드 선왕때보다 더욱 아랍권에서의사우디를 확고한 중심세력으로 올려놓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번에 황태자로책정된 압둘라·이븐·압둘·아지즈(58)와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압둘라황태자는 회교정통주의자로서 종교계의 확고한 지지를 얻고있는데 파하드의 친미정책에 가장 강력히 반기를 들어 가끔 충돌을 빚어왔기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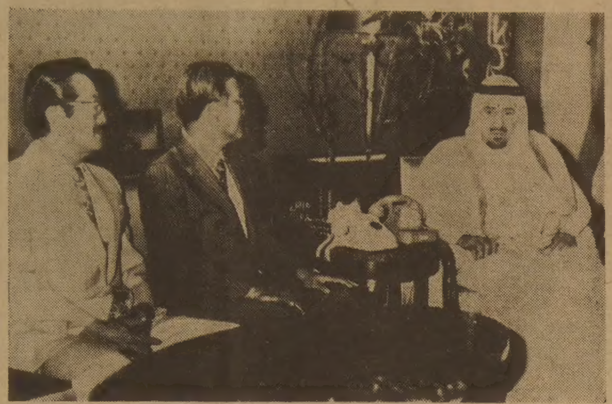
압둘라황태자는 사우디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파하드의 투자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는 서방 특히 지나친 對美의존정책에서 탈피하는 점진적인 근대화를 주장해왔다.

또 석유정책에서도 파하드국왕과는 달리 필요한 석유만을 생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하드국왕에 이어 사우디왕가서열 2위에있는 압둘라황태자가 제1부수상을 역임함으로써 파하드의 독주에 강한 견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파하드왕은 아지즈父王의 여러부인중 하사수데이리왕비사이에 태어난 7형제중 장남으로 형제들 모두 권력의 핵심체인 국방상 내무상 리야드 시장등으로 있어 왕가내 확고한 권력기반을 유지하고있다.

『수데이리·세븐』이라고 불리는 이들연의 핵심권력구조가 파하드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고있다. 【崔海雲기자】



◇金宗鎬건설부장관 (중앙) 이 지난 5월31일 생전의 할리드 사우디아라비아국왕 (13일 서거) 을 예방하고있다. 왼쪽은 張禮準駐사우디아라비아대사.

政治보다 生活즐긴 紳士

심장마비로 숨진 할리드國王

【리야드=UPI聯合】 심장마비로 13일 사망한 할리드 사우디아라비아국왕은 현재의 통일된 사우디를 창건한 초대국왕 압둘·아지즈·사우드국왕의 1백46명의 자녀중 다섯째 아들로 1919년 리야드에서 태어났다. 지난65년3월29일 황태자로 지명된 할리드국왕은 이복형 파이잘국왕이 정신이상자인 조카에게 암살됨에 따라 왕위를 승계했었다.

그는 젊은시절 사우디아라비아통일을 위한 군사작전에 가담하기도했고 파이잘국왕 아래서 제1부수상직을맡는등 정치수업을 받기는 했으나 정치에 적극 관여하기보다는 생활을 즐기는 신사기질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75년 왕위에 오를 당시 정치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파하드황태자가 국정을 처리할 것이라고 사실상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캠프데이비드협정이 체결된 지난79년 사우디는 다른 아랍국가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해방을위해 모든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선언하는 한편 내전을 겪고있는 레바논에 평화를 이룩하는데에도 기여했으며 지난76년 리야드에 레바논사태조정협의회를 조직, 레바논에 아랍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東쪽을 보라

아세안 2억6천만人의 새鼓動

태국

지천에 널린 「잠자는 沃土」

團結구심점은 國王·佛敎

부패·게으름 추방에 腐心

『코럽션!』운전사가 혀를 차며 한마디 내뱉는다. 썩은 관리들 때문에 나라가 안된다며 무앙(30세)은 화를낸다. 공항택시 운전사인 무앙은 순경을 볼 때마다 욕이 나온다고 한다. 방콕의 교통경찰은 사람 보는데서도 버젓이 돈을 받아 넣을 정도로 부패해있고 염치까지 없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차창 밖 路邊에서는 마침 카키색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보따리를 울러멘 노점상이 맞붙어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노점상들은 물건들을 대강 챙겨들고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다.

공항에서 외국사람을 태우고 방콕시내에 들어와 보여주게 된 첫 장면이 노점상을 붙들고 돈을 우려내는 광경이었으니 무앙이 화를 내며 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것 같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韓소장(외환은행 방콕사무소)도 처가에서 부쳐준 된장을 통관시키는데 한달이 걸렸다고 경험담을 털어 놓았다.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정식 통관절차를 밟았더니 서류거치는 곳(결재)이 15군데나 되더라는 것이다.

사무소에 함께 있는 현지 직원의 권유로 그 다음번에는 3백바트(약10달러)를 주고 말했더니 단 2시간만에 통관이 되더라고 했다.

방콕에서 파타야로 가는 고속화도로에는 군데 군데 동물가족이 말라 붙어 있다. 개같기도 하고 야생짐승 같기도 한 이 동물가죽은 차에 치여 죽은 시체 같은데 제때 치우지 않고 자동차들이 밟고 또 밟고 지나다녀 가죽처럼 납작하게 돼서 길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휴양지인 파타야까지 자동차로 2시간 반을 달리는동안 시야에 들어오는것은 지평선뿐이었다. 얼마나 평원이 넓길래 2시간반동안 구릉이나 언덕같은것도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일까. 산 투성이의 좁은 땅에만 살아온 한국사람에게는 가슴이 탁트이는 시원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 넓은 땅에 가득한것은 잡초와 야자수 뿐이다. 가끔가다 색이까만 남방소가 풀을뜯고있는것이 보일뿐 일하는 사람은 2시간반동안 단 한명도 구경할수 없었다.

부패와게으름은 태국이안고있는 가장 골치아픈 과제이다. 태국의 일부 의욕적인 관리들이 한국에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있는것은 이게으름때문이다. 부지런한 것을 배우는것, 특히 잠자는 농촌을 깨우는것이 이들의 가장급한 과제다.

태국의 총 국토면적은 51만4천㎢。 남한의 5배가 넘는다. 이중 절반이 경작지니까 태국은 남한 땅 전체의 3배 가까운 넓은 논과 밭을 가지고 있다. 4천8백만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손을 못쓰고 아깝게 놀려두는 땅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우리가 태국에 길도 지어주고 길도 닦아 주고 그대신 이 노는 땅을 빌어 쌀농사를 짓는 다면 수십억달러를 써가며 매년 쌀을 사올 필요도 없게 될수도 있는 일이다.

태국 땅은 대부분 늪지로 한 두자만 파면 어디서나 물이나올 뿐 아니라 연중 28도의 높은 평균기온에다가 80%의 습도를 갖고있어 기후 지리적으로 농사짓기에는 안성마춤인 나라다. 게다가 세계 전체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주석과 12·5%를 차지하는 천연고무를 비롯해서 텅스텐 안티머니 형석 망간 철광석 갈탄 천연가스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있어 마음만 먹으면 태국은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는 나라다.

태국이 지금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강한 개발의욕과 효율적인 성장전략이다. 이 아쉬운 것을 한국으로부터 배워보려 하고 있다.

월남패망후 국경의 긴장고조, 캄푸차난민유입과 남부지방의 테러활동등으로 태국은 政情이 불안하며 물가앙등과 경기침체로 경제도 안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태국은 내면적으로 공고한 단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강한 구심점을 갖고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태국을 단결시키고 있는 것은 불교와 국왕과 민족적 자부심이다.

태국에는 전국에 2만7천개의 사원이 있으며 방콕시내에만 8백개의 절이있다。전 인구의 92%가 불교신자이며 남자는누구나 일생에 한번쯤 중이 돼봐야 사람구실을 하게된다는 것이 이곳의 사회적 통념이다. 1~2년쯤 승적을 갖고 절에 들어가 승려생활을 하는것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군대를 갖다 오는것 같은 필수적인 경력사항으로 돼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반국가사범도 일단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면 이를 체포하지 않는 것이 통례다.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고 (머리는 정령이 머무는 곳이므로 손을 대서는 안되기 때문)、길에서 승려와 마주치는 여자는 한쪽으로 길을 비켜서고、물건 받을 때는 왼손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생활화된 이곳의 불교적 관습에 벗어나지않게 된다.

불교에대한 깊은 신앙심못지않게 국왕에대한 국민들의 존경과신뢰도 두텁다。국왕은 1년중 절반을 변방과 도시빈민촌을 돌아보기위한 출장으로 보내며 두세달에 한번은 기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에머럴드사원의 불상앞에서 국민을 위한 기원을 한다. 방콕시민들은 데모하는 학생들이 국왕을 모독하는 구호를 외치는 소리를듣고 대학으로 몰려가 학생들을 두들겨패고 기물을 부수기도했다。

식민통치를 받거나 외침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강한 민족적자부심과 불교에대한 신앙,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국왕은 태국을 흐트러지지 않게하고 있는 강한 구심점이다.

태국을 묶어 주고 있는 이 강한 구심점과 넓은 땅, 그리고 풍부한 자원은 태국의 장래에 희망을 갖게 해주는 밝은 요소들이다.

그들의 장래를 가꾸기 위해 태국은 지금 한국을 배우려하고 있다. 태국 대사관의 孫濟壽공보관은 『써 먹을만한 유익한 경험을 한국에서 얻어보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잠자는 농촌을 깨우기위해 「새마을」을 도입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 한국의 개발전략을 배워보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란 것이다.

태국과 한국을 세밀히 비교 검토해 보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저쪽의 결점과 우리의 장점, 저쪽의 장점과 우리의 결점이 서로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답답한 것은 가슴탁트이도록 시원스러운 그 넓은 평원을 보고도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한국관리들의 굳은 머리다.

글·사진=朴 武 특파원

◇태국은 넓은평원과 고온다습한기후로 농사짓기에 알맞은나라며 해마다 많은 쌀을 수출하고있다. (사진은 방콕교외의 水上시장)

안테나

레바논인구 20%가 難民化

食糧·식수難 심각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약3백만명의 레바논인구 가운데 5분의1에 해당하는 60만명이상이 난민이 됐으며 식량·식수및 의약품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라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12일 발표했다.

레바논주재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 프란체스코·노세다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레바논 민간인들이처한 상황은 참을수없을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각국에대해 긴급원조를 제공해주도록 호소했다. 【베이루트=AP】

印度거주 팔學生들 아랍文化院을 점거

對이스라엘戰참전을 원하는 1백여명의 인도거주 팔레스타인학생들은 12일 뉴델리의 아랍문화원을 점거하고 다마스커스행 항공편제공을 요구하고있는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뉴델리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관계자는 앞서 2백내지 8백명의 인도거주 팔레스타인학생들이 對이스라엘戰참전의사를 표명해왔다고 밝힌바 있다. 【뉴델리=聯合】

敎皇 바티칸 귀환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아르헨티나방문을 마치고 13일 바티칸市로 돌아왔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는동안 포클랜드분쟁의 평화적해결을 거듭 촉구한 교황은 이날 아르헨티나항공사의 보잉747여객기를 타고 로마교외 치암피노공항에도착했다. 【바티칸시티=AP】

레이건·蘇외상會談

레이건美대통령은 이달말로 예정된 美蘇군축 회담에 앞서 상충되는 양국의입장을 사전조정하기위해 이번주중 안드레이·그로미코소련외상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앞서 레이건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美蘇군축회담에 돌파구를열기위한 양국정상회담을 유엔군축특별총회 기간중 뉴욕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었다. 【유엔본부=AP】

英, 포島 자치政府구상

장기적해결위해

영국정부는 포클랜드를 탈환한후 포클랜드에 자치권부여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영국의 업저버紙가 13일 보도했다. 【런던=AP】

이軍 制空權장악은 美製레이다機 덕분

뉴욕 타임즈 보도

이스라엘이 중동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할수 있었던 것은 한번에 2백50대의 비행기를 추적하며 15가지의 요격방안을 알려주는 美製공중레이다기를 이용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뉴욕 타임즈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군사및 항공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4대의 그루먼 E2C (일명매눈)가 시리아의 미그機들과 공중전을 벌이는 이스라엘조종사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AP】

海外토픽

8세少女 인신매매

★英紙, 泰노예시장 폭로

영국의 런던·데일리·미러지의 편집장은 미러지의 한 기자가 타이의 노예시장에서 어린이 1명을 돈주고 샀다는 기사를 씀으로써 타이의 실정을 왜곡보도했다는 타이국영방송의 비난을 일축했다.

편집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존·필거기자의 보도가 『사실 그대로』이며 기록과 증인을통해 입증할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을 비지트·상통 타이노동성 국장에게 보냈다고 공개했다.

필거기자는 지난 3월22일 기사를 통해 자신이 타이 노예시장에서 직접 8세소녀를 약 1백50달러(10만5천원)에 살수있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노예매매가 타이의 한주요산업이 됐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런던=AP】

頭痛없애는 머리빗

★蘇서발명 불면증도완화

소련과학자들은 가벼운 전기충격으로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기적의 머리빗을 발명했다. 소련의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금속으로된 빗살과 손잡이에 연결된 9볼트의 배터리가 장치돼있는 이 머리빗은 두통뿐만아니라 고혈압도 멎어줄수있으며 불면증환자에게도 편안한 잠을제공한다는것.

그러나 이 기적의 머리빗이 아직 시판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모스크바=AP】

輪禍보상 百30억원

★두子女사망·위자료등

미국캘리포니아주 내퍼군에 사는 한젊은부부는 지난해11월 교통사고로 어린 두자녀를 잃은데 대한 위자료등으로 교통사고부문 사상최고기록인 1천7백50만달러 (한화 약1백30억원)의 보상금을 타게됐다.

이젊은 부부는 당장 2백만달러를받고 나머지는 50년동안 분할 지급받게된다. 【샌프란시스코=聯合】

힝클리 정상이었다

★精神상태論爭 가열

레이건미국 대통령 저격범 존·힝클리의 정신상태는 범행시 완전히 정상이었다는 또 다른 감정이 나옴으로써 그의 정신상태에대한 논쟁은 더욱 가열화됐다.

힝클리를 진단한 정신의학자 샐리·존슨여사는 최근법정증언을통해 힝클리는 행위의식별과 의사능력을 완전히 갖춘 정상인으로 저격당시자기가 하고있는행위에대한 부당성을 잘알고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한것이다. 힝클리자신은 지금까지 정신이상을이유로 범죄사실을부인하고있다. 【워싱턴=聯合】

메아리

공예王國

우리나라는 지난날 공예의 왕국을 이룩했었다. 지금 세계 고고미술품 애호가들의 뜨거운 눈길을 모으고 있는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만 보아도 능히 알수가 있다.

이와같이 세계의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공예의 모든 분야에 걸쳐 으뜸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여 말이 지나치지 않는것이 우리 공예의 전통이다.

신라사대 성덕대왕신종에서 보는 금속공예나 석굴암등의 불상에서 보는 석각조형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목물등 오늘날도 퇴색을 모르는 우리공예의 아름다움과 솜씨의 뛰어남은 누구든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현재 국가에 의해 국보·보물등으로 지정되어 값으로는 따질수 없는 중요한 문화재가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작가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지난날 이들공예품의 생산담당자인 장인은 거개가 절대적인 신분사회에서 사람다운 대접을 못받은 천인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장인들의 솜씨와 그들이 만들어낸 물건은 소중히 여겼으되 사람은 대접을 하지 않았고 이와같은 사회적 소외가 조선왕조의 쇠망과 더불어 대부분의 공예전통이 인멸하게되는 원인으로 된것이다.

60년대이후 전통공예 기능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조치로 무형문화재지정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부응하는 현대전문기능은 시책적 주목이 부실하여 파행의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차에 정부는 12일 현대기술의 산업화와 생산성향상의 구심점이될 45명의 기능장을 새로 탄생시킴으로써 박사와 기술사에 이은 세 솜씨의 마지막 하나를 보완한 셈이다.

이미 서독등지에선 오랜 세월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온 기능장제도다. 그 도입으로 나라의 온갖 부문에서 기능의 개발과 축적을 도모케하고 예선인들이 이룩하였던 공예왕국의 영광을 다시금 이땅에 되살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능장파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인 소외의 전통을 불식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저버리지 않았을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여기 강조해 두고싶다.

世界의 톱뉴스 【13日 UPI=聯合】

뉴 욕	이스라엘·PLO휴전동의	흐림	13~18
파 리	베이루트 다시포격	흐림	16~21
모스크바	제품공급개선방안	비	8~20
東 京	英, 포트스탠리공격	흐림	20~28
北 京	산업생산증가	흐림	17~27

오늘의 역사 <15일>

▲제 2 회만국평화회의, 헤이그서 개막 (1907) ▲美軍, 사이판島上陸 (1944) ▲시아누크캄보디아國王, 政權을장악(1952) ▲아시아민족반공연맹창설 (1954) ▲내각책임제개헌안, 국회통과 (1960) ▲의료파동발생 (1971)

MARVIN STARR

〈취급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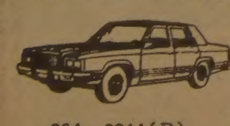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Digital Excellence DX

새로 나왔읍니다 !
DIGITAL EXCELLENCE
ORGAN 계의 새로운 혁명 !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세대가 DIGITAL CONTROL로 다가 왔읍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전반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읍니다.

가와이 DIGITAL ORGAN은 250개 회로의 특허로 등록되었 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되었읍니다.

※저희 Dealer에서는 본사에서 Organ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개인지도를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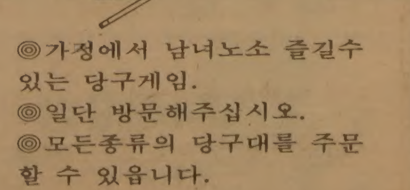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 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BRUNSWICK
SINCE 1845

THE PERFECT GIFT
〈가족전체가 즐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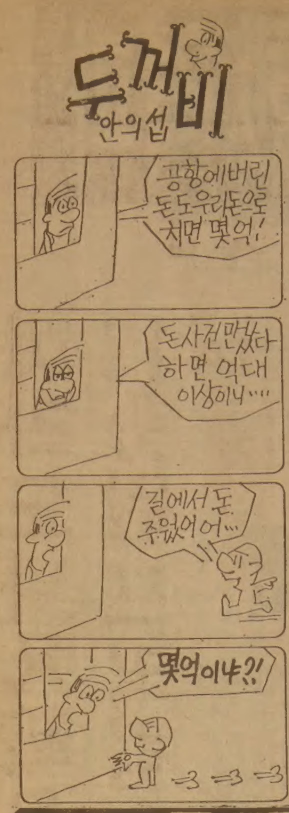


$ 422.00

◎가정에서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당구게임.
◎일단 방문해주십시오.
◎모든종류의 당구대를 주문 할 수 있읍니다.

HOME BILLIARD SALES
SERVICE & REPAIRS

5170 DIXIE RD. MISSI.ONT.
(딕시×401 SOUTH) ☎ 625—2691



背後에 旅券위조단

3枚발견…換錢해간 4명 지명手配

34萬弗사건

◇金福姬씨

◇李順德씨

◇鄭基滿씨

미화 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金浦세관은 14일 이사건이 국내 여행사를 중심으로한 여권위조 사기단과 달러 브로커들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세관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 모두 1백3명의 여권을 이용, 4개 시중외환은행에서 달러를 환전해갔는데 이중 여권3개가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는것.

세관은 외무부에 조회결과 우선 4개은행을돌면서 달러를바꾼 鄭基滿씨(26·충남大田市中區大興3洞36의33)등 4명의 신원을 확인, 전국에 지명수배했는데 세관은 이들이 모두 환전을위한 하수인이고 배후에서 조종한 여행사관계자나 여권브로커, 국내밀수조직등이 따로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세관은 그동안 압수된 여행자수표(TC)를 추적한 결과 鄭등 4명은 사건후 모두 행방을 감췄으며 이들외에도 외환은행 三一路지점에서 56명분으로 환전해간 미화6만달러중 1만3천달러가 추적중인 TC의일부이며 환전해간 사람은「해외개발공사 이영진」이란 가공인물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밝혀냈다.

3개의 위조여권은 매우정교해 은행직원도 식별하지못할정도였고 위조된 여권에는 역시 위조된비자까지 찍혀있었다는것.

1백3명의 여권은 鄭씨등 4명이 모아서 사용한것으로 鄭씨외에 李順德씨(35·여·경기松炭市新場洞196) 金福姬씨(28·여·경기東豆川市生淵洞558)와 지난달 20일 볼리비아로 이민간吳모씨(40)등이다.

세관에의하면 鄭씨는 지난 9일 외환은행 三一路지점에서 20명분 5만6천달러를환전해갔으며 李씨는 지난4월 26일 신탁은행본점에서 14명분 4만3천달러를, 金씨는 조흥은행 반도지점에서 17명분 4만달러를 환전해갔다.

세관은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이번사건이▲일시에 1백3명의 해외이민여권소지자들을 규합한점으로보아 여행사또는 여권브로커가 배후에 있고▲문제의 가방에서 TC보다도더많은 고액권 달러가 다량 발견된점으로보아 암달러조직및▲여권과 비자를 정교히 위조할수있는 위조조직등이 가담한것으로보고있다.

세관은 또 1백3명에대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10일 플라자호텔에서 체크아웃한 54명과 10일 하오 5시이후 5대의비행기를 예약취소한 1백39명에대해서는조사를펴고있다.

은행원 共謀여부 搜査

세관은 또 은행의 담당직원들이 이들과 공모했을가능성에대해서도 아울러 수사하고있는데 그이유는 한꺼번에 많은사람의 여권을 소지하고 환전했음에도 위조여부를 확인하지않은채 여권의 넘버, 소지자이름 주소등만을 기록하고 여행자 수표 또는 달러로 환전해주었으며, 직접 환전해간 鄭씨와 李씨등이 평소 안면이있는 여행사직원이 아닌데도 그들에게 손쉽게거액을 환전해준점등이 납득하기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측은「이영진」에게 TC를 교부해준 담당 曺모대리등 지점관계자들을불러 규정에어긋나게 거액을 환전해준 경위등을 자체조사하고있다.

한국외환은행상업로지점외환계TC담당 曺대리에 의하면 지난8일과9일 두차례에 걸쳐「해외개발공사」직원을 자칭한「이영진」이 52명의 해외이주자여권을 갖고와 1인당 1~3천달러씩 모두 6만달러를 바꿔갔는데 이중1만3천달러를 TC로 바꿔줬다는것.

曺대리는 세관에서『이주자 본인이 아니면 환전해 줄수없으나 위임을받은 사람에게 환전해주는것이 관례이므로 별다른 의심없이 환전해주었다』고 말했다.

海上히로뽕密輸 적발

5명구속·중국인主犯 수배

【盈德】경북 盈德경찰서는 13일 대규모 해상 히로뽕밀수단을 적발, 행동책인 鄭元一(36·부산釜山鎭區堂甘2洞818) 朴泰毅(41·부산東區草梁洞255) 吳瑾煥씨(47·부산影島區南港洞1가183)와 하수인인 盈德郡丑山面 어촌계장 崔益光(47) 盈德郡寧海面糸津洞등장 徐明出씨(45)등 5명을 관세법및외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범인 중국인 魏中興씨(47·부산南區)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파나마선적의 스웡호가 싣고온 히로뽕 중간원료인 염산에페드린 14부대(7백56㎏)와 행동책 鄭씨등이 갖고있던 일화 1천1백만엔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盈德】

현미효소 誇大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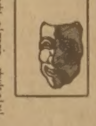
日서 말썽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건강식품으로 잘알려진 현미효소의 선전책자가 일본에서 정성분석한 수치보다 과대선전되고 있음이 밝혀져 일본 후생성에서 말썽이 되고있다고 14일 東京新聞이 보도했다.

이신문에 의하면 현미효소를 생산한 한국第一주식회사는 지난 1월19일 재단법인 일본식품 분석센터에 성분분석을 의뢰해간 뒤 실제 성분내용보다 비타민 B1、B2의 성분을 1백40배늘려과대선전함으로써일본정부선분분석지정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밤政治」의 안내인

요정莊園 정년퇴직하는 朴任得씨



朴任得씨(70·사진)는 난다긴다하는 우리나라 식도락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요리집수발의 1인자다. 53년동안을 요리집안내인 노릇만 했다. 그런데 그가 10여년간 몸담았던 옛 壽松국교앞 莊園을 엊그제 정년퇴직했다.

정계인은 물론이고 각계의 명사가 즐겨 찾는 한식요리집이 莊園이고 그 집앞에서 눈이오나 비가오나 어김없이 대문밖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손님을 안내한 사람. 朴씨는 자동차만 쳐보아도 누가 나타나는걸 쳐 알정도로 이 바닥에 이력이 난 사람이었다.

開城이 고향인 朴씨는 17세때 仁寺洞 千香園이란 요리집 사동으로 이일을 시작한다. 여기서 7년, 유명한 기생집 明月館에서도 20년, 貫鐵洞·仁寺洞 유·무명 요리집을 전전하다 70년이후 莊園에서 이력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요리집정치가 한창하던 지나간시대에 朴씨는 그 주역들을 안내했던 밤의 올빼미이기도했다. 자유당때 몸담았던 貫鐵洞의 초남요정은「밤의 국회」. 의사당은 방망이만 두두린 곳이고 의사결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朴씨가 수발을 들은 사람은 金九 呂運亨등 정부수립전 인물, 자유당·민주당의 정계인사들, 朴正熙대통령등 공화당의 정·재계거물들도 모두 포함된다. 朴씨는 정객들이 들어올때 표정과 나갈때의 표정을 읽고 政談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속으로 기가막히게 점치기도 해서 화제가 많았다.

政客들의 密談성패 점쳐 話題도

그렇게 숱하게 만났던 정계거물들이지만 朴씨의 속마음을 알아줬던 사람은 한국일보사주였던 고 百想 張基榮씨.

평소 인사만 했는데 南北조절위원회일로 平壤을 다녀온후 하루는 느닷없이 부르더니『자네 고향에 대신들렀지』라며 開城 善竹橋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꺼내주더라는것.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직접 갔다온것같은 마음이들어 가슴이 찡했다는 朴씨는 지금도 百想의 그배려를 잊을수 없노라고 말한다.

朴씨는 일생을 바쳐온 요리집앞을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쉽지만, 장남 乙鳳씨(48)가 같은 요리집 莊園의 지배인으로家業을물려받게 되어 아주 떠나는 기분은 아니라고 말한다. 여생을 부인과 함께 유람이나 하며 보내고싶다는 朴씨의 소망은 그가 보냈던 식도락안내의 인생을볼때 사치가 아니란 생각이든다.【金首宗기자】

釜山「美文化院放火」첫公判

어제 관련被告人 16명 出廷

"改革위해 學習 주도했다"

意識化내용 대부분 否認

◇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 첫공판을 지켜보기위해 온 방청객들이 부산지법정문앞에서 공판개정을 기다리고있다.【釜山】

【釜山=崔奎植기자】부산미국문화원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사건첫공판이 14일상오10시 부산지법제1호법정에서 부산지법제4형사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주심申瑀澈·洪光植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구속기소된 신부崔基植피고인(39) 金鉉獎피고인(32)등 15명과 불구속기소된 李昌馥피고인(43)등 16명전원이 출정했으며 재판부의 피고인인정신문과 검찰공소장낭독을마치고 사실심리에 들어가 金鉉獎피고인에 대한 검찰측반대심문을 모두 마쳤다.

이날 공판에는 부산지검 金斗濟 공안부장과 공안부崔炳國·張昌浩·高永宙검사와 특수부 辛光玉·李昊在검사등 6명이 간여했고 서울 통합변호사회 소속 黃仁喆·李敦明·洪性宇 변호사와 부산지방 변호사회 소속 金光日·李興條·鄭且斗·盧戊鉉·李淳伯·柳宰默·趙誠來 변호사등 모두 10명의 변호인이 변론에 나섰다.

金鉉獎피고인은 이날 검찰측 직접 신문에서『81년12월16일부터 12월22일사이에 가톨릭原州교구교육원에서 실시한 文富植등에대한 의식화학습과정에서 앞으로 유인물살포시에는 반드시「북칠준비완료」라는 문구를 삽입하라고 이야기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나 그밖의 공소사실에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金피고인은『주한미군이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한적은 없다』고 진술하고『학습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나 사회주의용어를 설명해준적은 있으나 자본주의체제를 타파하고 사회주의의체제로 변혁해야한다고 주장한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金鉉獎피고

金피고인은 80년 12월중순께 가톨릭原州교구장 崔基植신부밤에서 崔신부가『나도 유신을반대하여 많은 활동을 했다』며 전해준 각종진정서 옥중수기등을 교부받고 서로 공감했으며 개혁을위해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켜 조직을 확산하는것이 필요하다고단정, 의식화학습을 주도하게되었다고 진술했다.

의식화교육의 학습대상자는 현체제에 불만을 품고있는 대학생중 부산지역은 許珍洙피고인, 原州지방은 金英愛피고인, 전북지방은 이광철등이 연락을 맡아 부산·原州·전북·충북등 각지에서 文富植등 9개 그룹 27명을 선정했으며, 교육은 충북 梅浦역 건너편 예수교장로회 수양관과 가톨릭原州교구 교육원 등지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7시간정도씩 시켰다고 진술했다.

金피고인은 또 의식화학습과정에 대한 검찰공소사실중 대상학생및일시 장소 교육회수등은 모두시인했으나 학습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부인했다.

金피고인은 이날 검찰직접신문에대해 계속 설명식으로 대답하다가 재판장으로 부터『가부만을 대답하고 진술취지나동기, 심경은 나중에 얘기하라』는 주의를 여러차례 받았다.

또 검찰이 직접신문도중 남북한의 군사력비교를 영국전략문제연구소 통계를 들어 설명하다가 변호인측의 항의로 재판부의 제지를받고 중단하기도했다.

검찰은 직접 신문에 앞서 공소장낭독을 통해『피고인들은 현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기위해 崔基植신부의 비호아래 천주교原州교육원등에서 좌경 反美의식화학습을 주도 또는 수업하며 북괴노선에 동조하고 反美사상고취, 반정부시위선동, 대규모소요유발을 위해 3월18일 부산美문화원에 방화했다』고 피고인별로 범행사실을 6명의 검사가 차례로 낭독했다.

이날상오 공판은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장낭독만을마치고 하오1시15분께휴정, 하오3시5분 속개돼 하오4시45분 폐정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피고인의 가족과 종교인등 1백여명이 방청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原州교구 池學淳주교, 안승길신부, 부산교구 李甲秀주교, 光州교구 尹恭熙대주교, 서울東大門성당 金勝勳신부, 文正鉉신부, 부산교구 사목국장 崔榮哲신부등의모습이보였으며 뉴욕·타임즈 AP, UPI, CBS방송등 내외신기자 20여명이 취재에나섰다.

또 방화사건당시 숨진 張德述군(당시22세·동아대상대3년)의 아버지 張원풍씨(66) 어머니 홍복순씨(53)와 화상을입었던 부산대회화과4년 許길숙양(24)의 어머니 이연필씨(50), 김미숙양(24)의 부모등과 미대사관직원2명도 공판을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지난4월29일 기소되어 지난5월24일 1차공판이 열릴예정이었으나 검찰측요청으로 연기됐다.

다음공판은 오는21일 상오10시.

은행代理가 顧客예금 횡령

京畿銀 城南지점

13차례 1억5천만원

【仁川】경기도경은 14일 예금주가 맡긴돈을 인출, 1억5천7백만원을 횡령한 경기은행城南市中洞지점대리 정삼룡씨(37·경기城南市銀杏洞368)를 업무상 횡령및 유가증권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정씨는 지난해10월26일 통지예금거래를 튼 城南市소재 이한실업대표 진길동씨의 예금중 4천만원을 두차례에걸쳐 몰래 빼내 횡령한것을 비롯, 13회에 걸쳐 1억5천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정씨는 또 금년1월28일 城南市丹垈洞소재 송신여자중고등학교가 수익용 자산을 충당하기위해 4천6백62만7천원짜리 정기예금증서의 발행을 의뢰하며 맡긴돈 1천7백만원을 가로챈후 가짜 정기예금증서만을 발행했고 지난 80년9월6일부터는 세차례에 걸쳐 선납의료보험조합이 정기예금한 3천8백만원을 같은숫법으로 빼내 횡령한 혐의이다.【仁川】

最大「마애半跏像」발견

檀大, 경기도利川서

麗代것…높이3.2m 어깨폭1.2m

경기도 利川郡 麻長面 長岩里 들판 농로옆의 큰 바위에 새겨진 磨崖半跏像(마애반가상)이 檀國大박물관 학술조사단(단장 鄭永鎬교수)에의해 최근 확인됐다. 두꺼운 이끼를 벗고 모습을 드러낸 반가상의 크기는 높이 3.2m, 어깨폭 1.2m의 규모.

학술조사단은 미륵바위 뒷면에 새겨진 30여자의 글자를 발견했는데 서두의 「太平興國六年 辛巳」란 글자로 미루어 지금부터 1천년전 高麗景宗6년(서기981년)때 것으로 밝혀냈다.

이 마애반가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인도등에서 발견된 마애불상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례비 말썽 警官8명중 2명 辭表거부

李·張부부강도사건

李哲熙·張玲子 부부로부터 강도사건을 해결해주고 사례비를받아 말썽이된 서울江南경찰서소속 경찰관8명중 경무과장 金鍾律경정(42)과 형사5반 林永男순경(35)등 2명이 14일현재 사표제출을 거부하고있다.

金경정은 ▲李·張 부부로부터 1백만원을 받았으나강도사건해결을위해 보안유지부탁을 받은것이아니고▲李·張부부의 비서 金勇男씨(구속중)와 여러번만나 술을마신것은 사사로운일로 업무상관계가 없다면서『징계의 사유가되지 않는다』고 주장, 사표제출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林순경은 지난12일 귀가한 후 연락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

한편 서울시경은 두사람이 사표를 제출하지않을경우 중앙징계위에 회부, 파면조치할 방침이다.

高여인 保釋 오늘중 결정

尹景花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는 15일중으로 高피고인에대한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검찰은 3일이내에 불복(즉시항고)을 할수있는데 보통은 보석허가결정이 있는날 불복을 포기, 당일중으로 석방된다.

他大學 시위가담 2명 15일구류

서울淸凉里경찰서는 14일 文陽洙군(21·외대스페인어과3년)과 宋河錫군(25·〃불어과4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金元鎬군(21·〃경제과2년)등 외대생 3명을 즉심에 넘겨 15일간의 구류를 받게했다.

경찰에의하면 文군은 지난10일낮12시20분께 외대사회교육회관 4층에서 시국과관련, 시위를 선동하는 유인물 3백장을뿌린 혐의며 宋군등 4명은 동료30여명과함께 이날하오2시30분께 이웃 慶熙大학생들의 교내시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Keele · Eglinton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응답.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벨기에、優勝후보 아르헨 격파

後半17분 반덴베르그 12m 슛 1—0

아르헨、"오프사이드"항의…어물어물대다 허용.

올해23살、금발의 반덴베르그는 후반17분 동료 알렉스·체르니아친스키가 길게 크로스 패스한 볼을 가슴으로 받아 떨어뜨린후 왼으로 뛰쳐나온 아르헨 GK우발도·피욜의 왼쪽으로 가볍게 차 넣었다。아르헨문전 12m지점서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아르헨수비진에서는 주심(체코출신)에게 오프사이드라고 항의하며 어물어물하다가 골을 먹었으며 이오프사이드항의는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아르헨의 슈퍼스타인 디에고·마라도나(21)는 후반30분 아르헨 페널티에리어모서리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 절묘한스핀킥을 시도、볼이크로스바 하단에 맞고 떨어져 1—1동점을 만들지 못했다。볼이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튀어나오자 FW마리오·켐페스가 재빨리 따라붙어 슛했으나 벨기에 GK 파프가 잘 막아냈다。

세계에서 가장값비싼 선수로 명성을 날렸던 마라도나는 이날 때때로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명성에 버금가는 플레이를 보이지못해 관중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아르헨은 78년 월드컵을차지했을때의 멤버 9명에다가 HB마라도나、FW 라몬·디아즈등 2명을 보강하여 스타팅멤버로 내세웠으며 벨기에는 출전정지처분을받은 명스위퍼 왈터·미우스와 부상중인 HB 레네·에이켄 없이 출전했다。

개막전서 의외의 패배를맛본 아르헨은 오는18일 헝가리와 대결하는데 이경기가 1차예선돌파의 고비다。

경기가 끝난후 아르헨의 메노티 감독은 『조국이 어려운때에 처해있는데 승리를선물하지 못해 미안하다。그러나 우리는 잘싸워 좋은성적을 올릴것이다』고 말했다。

대회 이틀째인 14일에는 ▲1조 이탈리아—폴란드 (비고市) ▲6조 브라질—소련 (세빌리아市) 두 게임이 벌어진다。

蹴球는 혼자못한다

▲벨기에 구이·치스 감독=축구는 마라도나와같은 선수가 혼자하는것이 아니다。나는 마라도나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다。축구가 팀워크의 경기란 것을 오늘 증명해 기쁘다。

오프사이드였다

▲아르헨 세자르·메노티 감독=벨기에의 첫골은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이루어진것으로 선심의 실수였다。

◇제1일전적

▲3조 (바로셀로나)

벨기에 1 (0—0, 1—0) 0 아르헨티나

(1승)　(1패)

◇아르헨티나—벨기에 개막경기。78년 월드컵 정상이었던 아르헨티나의 마리오·켐페스⑩가 벨기에선수 2명에게 샌드위치마크를 당하고있다。벨기에가 1—0으로 이겼다。【바르셀로나AP=聯合】

월드컵축구 제1일

마라도나凡戰으로 觀衆실망

13分뒤 프리킥…크로스바맞아

【바르셀로나(스페인)13日聯合】월드컵 축구는 개막부터 파란을 일으켰다。세계의 축구대제전인 제12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前대회우승국 아르헨티나를 비롯 2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24일 새벽3시 (한국시간) 이곳 노칼프 경기장서 3조 아르헨티나—벨기에 예선전을 스타트로 개막、오는 7월13일까지 장장28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이날 개막전에서 유럽의 복병 벨기에는 前대회 우승팀이자 이번 스페인 월드컵우승후보로 지목된 아르헨티나와 대결、후반 17分FW 에르윈·반덴베르그의 결승골로 예상을 뒤엎고 1—0으로 이겨 대파란을 일으켰다。

월드컵通信

開幕戰 전세계 7억 同時시청

24개國歌 차례로 연주…브라질 優勝장담

개막식에서 바로셀로나 시경찰악대가 24개 참가국들의 국가를 차례로 연주、각국국기가 게양됐는데 9번째로 아르헨티나 국기가 게양되자 수천명의 스페인군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개막경기는 전세계에서 약7억에 달하는 축구팬들에게 위성중계됐다。

펠레·베켄바워도

◆…축구황제 펠레가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 도착、西獨의 프란츠·베켄바워、英國의 보비·찰튼등 퇴역스타들과 합류했다。펠레는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의 개막경기가열리는 노칼프 스타디움을 둘러보고 『축구에의 향수를 떨쳐버릴수없다』고 말했다。

國王등 VIP입석 아르헨旗에 박수도

◆…개막경기가 열린 바로셀로나 노칼프 경기장에는 카를로스스페인국왕과 아벨란제 FIFA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비롯、각국임원및 귀빈들이 참석했다。

萬事는 월드컵뒤

◆…월드컵대회사상 처음으로 4번째 우승을 꿈꾸고있는 브라질에서는 『만사는 월드컵대회가 끝난후로 제쳐두자』라는 유행어가 나돌정도로 열기가 고조되고있다。

브라질의 코치 산타나씨는 선수들의 신체적컨디션과 정신상태가 완벽하다면서 『우리는 득점없는 무승부에는관심이 없다』고 큰소리。

거지떼들 雲集예상

◆…월드컵대회에 대비、보안을 강화한 스페인경찰은 대회기간중에 거지、도둑들이 마드리드를비롯한 주요도시에 몰려들것이며 狂的인팬들이 폭력사태를 일으킬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

경찰은 관람객들의 유의사항을 신문을통해 홍보하고있는데 그내용중에는 ▲싸움에 끼지말라▲경기장에 깡통이나 유리로된 물건 또는 방석을 던지지 말라▲뒤호주머니에 지갑이나 돈을 넣지말라 ▲보석류·돈 그밖의 귀중품은 숙소에 보관시켜라 등등이 포함돼있다。

中共도 실황중계

◆…中共TV는 월드컵지역예선전에서 中共이 뉴질랜드에 패배하여 본선진출이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월드컵경기실황을 중계할 계획。

中共TV는 14일부터 매일저녁 1시간씩 월드컵경기를 방영한다고 13일 발표했다。

英TV 중계外面도

◆…英國의 인디펜던트TV방송국이 아르헨티나—벨기에간의 개막경기를 중계하는대신에 골프경기를 중계하기로 결정하자 선데이·옵저버紙는 『이무슨 쓸데없는 제스처란 말인가。아르헨티나 선수들이 훌륭한 경기를 펼친다고해서 영국민들이 낙담이라도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단말인가?』라고 비꼬았다。

한게임 1만弗요구

◆…스페인의 월드컵 출전선수 22명은 스페인 축구협회에 게임당 1만달러와 결승진출의 경우 8만달러씩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마르카 신문이 보도했다。스페인의 엘파이사인드 신문은 이대가가 너무 비싸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보도했으며 파블로·포르타 스페인 축구협회장은 이요구에 아직 아무런 응답도 하지않았다는것。스페인 축구협회는 대회수익예상금 1억1천만달러가운데 약25%를 차지한다。【이상外信·聯合=聯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⑰

하찮은 일에 의해 팔자가 바뀌는 일을 피할수 없다고 해도 그하찮은 일을 그때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들이라는 생각속엔 어쩔수 없이 그녀의 연륜이 배어 있었다。

『언니야』

순자가 느닷없이 어린이처럼 응석을 부렸다。

『왜 그래?』

오욱이는 치마꼬리에 감기는 아이 뿌리치듯 쌀쌀하게 대꾸했다。

『훨훨 멀리 가고싶어』

『네 형편에 여행은 아직 사치야』

『돈 안들이고 시간도많이 안걸리고 후딱 갈수있는데를 난 알거든』

『흥 수락산?』

순자가 사는 동네는 수락산 자락에 붙어있었다。

『아냐。더 멀리、아주 멀리 눈 깜박할새 갈수있어。그걸 언니는 모른다구나。그걸 왜 나만 알까?난 별로 똑똑지도 못한 주제에』

『그게 어딘데?』

『죽어버리는 거야』

오욱이는 말 없이 순자를 건너다보았다。화장품과 레이스 달린 속옷과 함께 죽음을 천당게 보듬어안고 있어도 조금도 이상하거나 엉뚱할 건 없다고 생각했다。보통 이상 죽음인들 화장품이나 레이스 달린 속옷보다 결코 덜 녹녹할것도 없으리라。

『너 혹시 일환이 오빠 소식 아니?』

오욱이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벼르던 깐으론 순탄하게 말문이 열렸다。그녀가 집나오자마자 곧장 순자한테 이끌린 까닭을 알것 같았다。순자가 제법꾸석이라도 한칸 가진 탓도 있었지만 순자가 〈오누이 집〉을 거친 아이들 가운데 가장 정통한 소식통이란 소문때문이었다。더 악질적인 소문중에는 〈오누이의집〉을 거친 남자애치고 순자 한번 못따먹은 녀석은 병신이라는 징그러운것도 있었다。

마음이 헤프고 입이 싸고、전사해를 어른이없어 너도나도 쉽게 넘보다보니 그런 고약한 입방아에 오르내리게됐으려니 동정을 하면 했지、그런 소문을 믿을건 아니었다。

그러나 순자를 찾아와같이 지내면서 일환이 소식을 묻기를 며칠씩이나 미룬건 그런 소문을 많이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오욱이는 아직도 일환이가 준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찾아갈수도 있었다。그녀는 그 명함을 보따리속 가장 깊은 갈피속에 돈과 함께 간수하고있었다。

일환이를 썰렁한 빈집이된 〈오누이의 집〉에서 만난지가 오년이 넘었으니 명함에 적힌직함에 여태까지 눌러앉아있으리란 보장은 없었다。그렇더라도 고아원을 면하자마자 배운 기술이니 그 계통을 아주 떠나진 못했으리라。

직접 그바닥으로 찾아나서면 쉽게 만날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오욱이는 그러기가 망설여졌다。오년동안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미리 알아내고 싶었다。사정 여하에 따라선 그를 영 안만날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순자를 통해 알아내고싶은 건 일환이의 거처가 아니라 그의 신상에 관해 떠도는 소문이었다。그동안에 장가 들어 아이가 하나 둘쯤 생겼다까봐、그녀는 두려웠다。능히 그러고도 남을 세월이었다。자신은 허황된 꿈을 꾸는 동안 그는 착실히 생활을 다졌다면 두사람 사이가 돌이킬수없이 벌어지게 너너한 틈이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流星의 賦 <409>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⑦

권율장군으로부터 전갈이 왔다。

행주산성에 대병(大兵)을 집결중인데 적의 방해가 심하여 식량의 수송이 대단히 곤란하다며 홍계남의 협력을 요청해 온 것이다。

식량문제는 피아간에 중대 문제였다。적군도 이 문제엔 신경을 썼다。한편 흉포한 짓을 감행하면서도 뜻밖에 착한 태도로서 백성을 대하기도하는 일본군의 태도는 농부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이곳 저곳 폐농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군측에서도 농부의 농경에 지장이 없도록 애를 썼다。

홍계남이 언제나 제한전(制限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주로 농사 때문이었다。그런데 추수기가 지나자 적들은 식량을 구할수 있는 데까지 구하기도 하고 약탈도 해선 그들의 주둔지 창고에 보관하곤 엄중하게 지키고 있었다。그런 틈바구니에서 막대한 군량을 확보하려고 하니 어려운 일이다。

식량 보급선을 끊어 놓고 포위해버리면 성의 함락은 시간문제이다。그래서 이런 전법은 흔하게 사용 되었다。계남은 권율의 고충을 알았다。조인식을비롯한 막료들과 의논한 후、왜적이 파천창고에 확보해 둔 식량을 강탈하여 행주산성으로 보내기로 했다。

파천창고의 소재지는 파천출신의 의병이 많았으므로 확히 알 수가 있었다。거기 소장되어있는 곡식수도 대강 짐작할 수 있었다。벼 약 2천석。2천석이면 많은 것 같아도 병사 하나가 하루 한되를 먹는다고 치고 만명의 병사이면 하루 1만되를 소요로 하고 1만되면 백석、열흘 동안의 식량밖엔 안된다。

그러나 그거나마 일단 확보해야 하는데 2천석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라도 하룻밤 사이에 옮기려고하면 2천명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전투를 해서 승패를 결하는 것보다 양곡탈환 작전은 수배로 어렵다。홍계남은 막료들과 구수회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무슨 수단을 쓰든지 장정 2천명을 모아 야음을 이용하여 근처의 산에 미리 잠복해 있도록 해놓고、일대는 군포 쪽에서 공격을 감행하고、일대는 안양에서 배면을 찔러 협공하여 적군을 전개한다。다른 일대는 적시간을 벌기 위해 추격전을 관악 쪽으로 몰아 충분한 외원병에 대비하기 위해 요소요소에 매복한다。작전 개시는 자정(子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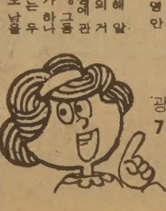
계남은 적군이 야음엔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아무래도 지형과 지물에 익숙해 있지 않은 그들로선 당연한 일이다。

그 밤은 명명히 추운 밤이었다。

자정을 기하여 군포로부터 쳐들어 갔다。적의 주의가 일제히 군포쪽으로 쏠렸다。그때 안양쪽에서 배면 공격을 시작했다。당황한 적이 피할 곳이란 관악 밖에 없었다。계남은 맹렬한 추격을 감행했다。

그 사이에 산에 잠복해 있던 장정들이 일제히 창고에 쇄도했다。순서를 미리 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은 없었다。

장정들이 창고를 완전히 비우기까지 반각이 걸렸다。반각이면 지금의 시간표현(時間表現)으로 한시간이 된다。그리고도 일각을 더 추격하다가 암호가 있자 추격을 중지하고 식량을 운반하는 장정들을 엄호하는 태세로 후퇴했다。그렇게 하여 2천석의 군량이 동이틀 무렵엔 행주산성에 도착해 있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738-7315
☎ : 533—2361

알립니다

교민여러분의 꾸준한 성원속에 거의 국보와 같은 품질로 가격이 저렴해서 인기폭발이었던 D·Y. 가주미가 다시1콘테이너 들어왔읍니다. 계속 애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품질좋은 다양한 품목이 있는 것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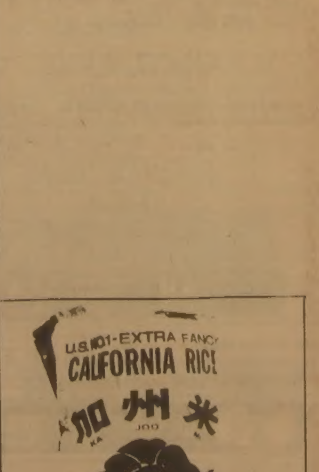
- D·Y. 새우젓(특등품)
- D·Y. 마른반찬
- D·Y. 고추가루
- D·Y. 당면
- D·Y. 국수(우동국수·막국수·소면)
- D·Y. 참기름·엿기름·메주가루등
- 그외 수백가지의 D·Y 종목이 있읍니다.

캐나다 D.Y. IMPORT 총판

☎ : 675—8903　오기환

D·Y. 식품 판매처 :

삼복식품 743—8270　한밭식품 274—5401
제일식품 532—1054　서울식품 291—8317
서울식품·서부지점도 곧 오픈예정임.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데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남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Q.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전학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노스 · 욕.시보레
O. 시보레, 올스모빌, 각종 중고트럭
O.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O.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의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

구 인

경험이 2년정도 되는 분으로 한국자개에 관해 조예가 있으신분 구함(시간당 $5.00)
전화 : 665-8233

혼자 계신 할머니 방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서쪽지역.
전화 : 245-6217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Store Manager구함 (경험요망)
Downtown 지역
전화 : 368-8138

Donut Shop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월~금,토)
전화 : 531-2689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읍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지렁이 잡으실분. 유경험자 최고가격
전화 : 245-1694

유 경험 웨이트레스 구함.
희망자는 460 Dundas St. W.로 내방바람.
(3:00 p.m.이후)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유경험자)
미시사가 론·팍(Lorne Park)지역
전화 : 278-8101

지렁이 잡으실분.
Weston & Finch지역
전화 : 741-2557

구 직

두살 이상의 아기를 저의 집에서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3-4670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1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884-5573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Restaurant, Tavern, Hotel & Drive in Burgers at 쎄인캐서린, 나이아가라
1)좌석20개와 17개. 15년리스. 식당파태번은 다운타운에 좋은 위치에 있음. 좋은 가격.
2)28개의 Unit가 있는 호텔(나이아가라 폭포). 좋은 가격.
3)HWY3에 있는 18에이커의 상업대지 급매. (Crystal 과 Fort Erie가는 길임) 플라자나 Drive in Burger, 도너츠·숍지역으로 적당, Traffic이 많은 HWY3 교차로 Gas Pumps있음. 더자세한 문의가 있으신분 1-892-2089 또는 657-1722(오후5시이후·토론토)
NICK KARAN R·E, BROKER

경쟁없는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자동차 급매. 75년식 벤츄라 4 Dr.
P.S./P.B Auto-Trans. 260V8
전화 : 746-4289 Mike

1) Somke & Gift Shop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렌트 : $660
아스킹 : $50,000.

2) Fast Food Take-out Business
주매상 : $5,000. 주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 내.
리스 : 1990년. 렌트 : $830. 아스킹: $225,000

3)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인 햄버거·숍
주매상 : $8,000. 리스 : 4년+옵션. 렌트 : 1,700. 아스킹 : $350,000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Variety Store급매.
주매상 : $4,500+로타리오(3 Bed Room 포함)
리 스 : 8년 전화 : 421-5151

야마하 피아노 스튜디오 싸이즈
(STUDIO SIZE)
전화 : 766-8849 Mr. 문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465 Vaughan Rd. Tor.
관심 있으신분 내방 바람.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매상이 계속 늘고 있고 주위에 경쟁없는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3,500
전화 : 239-7267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2층 살림집 포함한 Downtown에 위치한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769-3265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Store 장비 팝니다.
캐쉬 레지스터, Scale(저울), Shelf 등등.
전화 : 249-9773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건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청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죠지)

전망좋은 밀크스토아 매매.
휜치×베더스드 지역.
전화 : 222-5370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Donut Shop 매매.(Downtown지역)
주매상: $5,500~6,000 리스: 2+5+5+5(17년)
전화 : 977-2299 (Mr. 최)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3,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광 고 접 수
533~2361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하우스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7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광고문의 533-2361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토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인구매 주식회사

설립 기념사은대매출

신록이 싱그러운 소망의 계절,
교민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한인구매주식회사는 설립기념 스페시알(특가 대매출)을 실시하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사발행 영수증을 모아 가져오시는 고객에게 아래상품을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CASH REGISTER TAPE
(영수증) 모아오세요.

● 쌀D. Y.가주미

●일본라면

●D · Y참기름

영수증과 교환

400달러 영수증에 -------- 50Lb 쌀1포
300달러 영수증에 -------- 가도야참기름 1Gal —1캔
200달러 영수증에는 -------- 일본라면 24봉 1BOX

무료로 드림

쌀	50Lb	15.95
일본라면	24봉	7.95
회조개 깐것	2.2 Lb	7.95
낙 지	2.2 Lb	7.95
햇새우젓 (특등품)		1.99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서울식품	291－8317	367 PITFIELD RD.